

I. 연구 개발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도 편리해지고는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은 메말라가고 정서는 날로 각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심해져서 사회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처음에는 경악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무감각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질에 우선적 가치를 둔 향락 문화 등이 설사이 없이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전통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채 외래 향락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뚜렷한 가치관과 확고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사와 기업 등에서도 전통 축제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방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지역별로 전통 축제 행사를 매년 주최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해 왔다. 또한 일부 청소년 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통 축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정착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전통 축제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통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청소년들의 전통 축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청소년 축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전통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외래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축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의 감수성을 훈련시키며, 나아가 공동체 의식 등 전통문화의 훌륭한 점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문헌 연구

전통 축제 관련 서적 및 선행 연구 자료의 조사를 통하여 전통 축제의 의미와 유형, 운영 형태, 외국 사례 등을 알아보며, 프로그램의 세부적 작성에 필요한 단체나 기관, 특정 지역에서 전통 축제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나 팸플렛 등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사례 조사

전통 축제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 단체별 전통축제 프로그램의 실태와 유사 활동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청소년 전통 축제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청소년 전통 축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청소년단체를 방문하여 현재 청소년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전통 축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3) 면접 조사

문헌과 각 관계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하여 설정된 청소년 전통 축제의 연구 방향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해, 그리고 청소년 전통 축제 프로그램(안)의 구성 후 프로그램에 관해 관련 전문가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자문하였다. 전문가의 구성은 축제 관련 학과 교수와 전통 축제를 실제 기획하는 사람 및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 5명으로 하였다. 주요 자문 내용은 연구·개발의 방향, 연구·개발보고서 구성(안), ‘청소년 전통 축제 한마당’ 수련거리(안)에 대한 의견과 개발보고서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나 정보의 소개 등이었다.

4) 설문 조사

본 조사는 1995년 8월 7일(월)~8월 19일(토) 사이에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6대 덕목 함양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천 광역시, 충청도, 전라도 지역 청소년 360명을 대상으로 전통 축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참여 실태 등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전통 축제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인천 광역시,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청소년 6대 덕목 함양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 각각 120명씩 총 360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련활동 참여 인원 변동과 부적합한 자료를 제거하여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총 299부였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99명, 충청도 지역 117명, 전라도 지역 83명이었고 학교별로는 중학생 205명, 고등학생 94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84명, 여자 215명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전통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청소년의 전통 축제 참여 실태, 전통 축제의 문제점, 전통 축제의 활성화 방안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 - 1〉

설문 분석 수

지역별 학교별 성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합 계
	남	여	남	여	
인 천	22	28	20	29	99
충 청 도	5	67	1	44	117
전 라 도	36	47	0	0	83
합 계	205		94		299

전통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의 전통 축제에 대한 느낌을 ‘정겹다’, ‘흥분된다’, ‘신난다’, ‘지루하다’, ‘어렵다’, ‘답답하다’라는 이미지별로 살펴보고, 전통 축제의 필요성 인식 정도, 청소년 전통 축제의 좋은 점을 조사하였다.

청소년 전통 축제의 참여 실태는 청소년들의 축제 참여 경험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청소년 단체, 학교, 지역 사회의 주관 단체별로 조사하였으며, 축제 참여 동기, 기획·준비·진행·평가 과정별 축제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년 축제에 대한 만족도와 참가 의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전통 축제의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통 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축제에 적당한 시기, 기간, 프로그램 내용과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자가 청소년 수련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인천, 충청도, 전라도 세 지역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활동을 참여 관찰하면서 담당 지도자에게 설문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활동 기간 중이나 후에 조사를 실시, 이를 회수하여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빈도, 백분율, χ^2 등을 분석하였다.

3. 수련거리개발의 기본 방향

1) 청소년 중심의 원칙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에 근거하여 계획되며 청소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특성과 정서를 감안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참가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잡지나 만화를 고전문학보다 더 선호하며, 클래식 음악보다는 팝뮤직을 더 좋아하고, 팬시 스토아에 가고 캐주얼 의상을 입는 것을 백화점에 가거나 정장차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에게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참가청소년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실시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서 구성·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들이 만든 프로그램보다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프로그램에 보다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준비나 진행 과정, 강사 선정, 타 단체와 협력 관계, 외부 후원 얻기, 평가 제도 등에 있어서도 청소년 주도의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른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일으키며 깊은 영향을 준다.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 유익하고 가치있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한 의미는 있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프로그램 일반론에서 말하는 좋은 프로그램 즉, 능동적이고, 참가자들의 인간 관계가 보다 역동적이며,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준비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셋째, 프로그램의 특성과 여건에 의해 성인지도자들에 의해 준비되고 전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청소년 참가자의 자율적인 활동이 유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련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수련활동 자체에 열중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의 주의를 산만해지는 이유는 주어진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이론지도 부분과 같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론지도 부분에서도 질문이나 발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실천 사례의 접목과 적용성의 강화

청소년 수련거리나 프로그램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확고한 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이론적 논리(logic)와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을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강화하고 현장적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수련거리를 개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명하고 진지한 논의와 명확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 이전에 구체적인 합리적인 과정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실천이 요구된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참가 청소년이나 지도자들에 의해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소 변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안·개발되어야 한다. 현장 적용성이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활동 순서와 나열식 구성 형태를 갖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기술될 경우 오히려 현장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참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준 높은 내용들로 구성하는 한편 구성 방법 역시 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처방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해 본 활동지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프로그램 개발 제원칙의 준수

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계획·조직－시행－평가의 절차적 단계와 전개과정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 등에 관한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첫째, 프로그램의 계획 및 조직 단계에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전략을 설계하며 목표를 구체화시킬 활동 내용과 방법을 선정·조직한다. 어떠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활동을 선정할 것이냐는 언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느냐에서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교재·시설·인력 등의 실천계획을 세우는 일, 일정 계획과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일 및 자원 할당의 선정 및 계획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몇가지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① 프로그램 내용은 목표설정에서 고려된 개인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 및 철학적 이념을 구현·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목표와의 일관성) ②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능력 수준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주제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한다.(능력과 흥미에의 적합성) ③ 선정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진 인력이나 시설 및 재정 또는 자원의 여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실천에 옮겨질 수 없다.(지도 가능성) ④ 한 가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경험 내용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내용과 연관시켜서 선정하고, 한 가지 내용을 두개 이상의 목표와 관련지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한다.(목적과 경험의 다원화) ⑤ 청소년활동의 경험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여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실용성) ⑥ 동일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도 그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활동의 효과는 물론 지역의 문화·전통의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원리이다.(지역성의 고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단계가 끝나면 조직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전략을 세워 목표에 명시된 내용을 프로그램의 특성과 의도를 살리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잘 조화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내용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유리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실시 기간, 내용의 우선 순위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횡적, 종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의 일반적 원칙으로 ① 내용 상호 간에 밀접한 연결을 지우면서, ② 구체적인 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③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④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관련짓는 것이다.

셋째, 진행된 프로그램은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밝혀지므로 장점은 계속 권장 장려하되 단점은 줄이거나 없애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수시로 수정·보완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 전체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전개과정별로 요구되는 일반적 원칙은 본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 지침으로 준수될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증가시키는 경험을 갖게 하며 사회적응, 상호작용, 상호협조와 민주적인 생활 체험 및 잠재성 개발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수련거리의 구성 및 모형 개발

1) 수련거리의 구성

청소년 전통 축제 한마당 활동 수련거리는 청소년들의 전통 축제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에 깃들여져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실제로 느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제에 대한 인식, 준비, 진행, 평가의 4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활동이 되는 진행 과정은 열림 마당, 노래와 춤 마당, 놀이 마당, 창작 마당, 풀이 마당의 5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 -2〉 전통축제한마당 활동 수련거리의 구성

과 정		단 위 활 동	활 동 내 용
인 식 과 정		축제 의미 토의 내 고장 축제는 그 맛을 느껴봐야	축제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조사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체험한다.
준 비 과 정		목표 정하기 백지장도 맞들어야 계획은 처지에 맞게	축제를 진행함에 앞서 축제를 기획하는 목적 및 필요요건 대하여 알아보고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축제계획을 세운다.
진 행 과 정	열림마당	온 동네를 하나로 홍겨운 우리 혼례 조상님께 인사부터	축제가 시작됨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제의식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즐거움과 경건함을 동시에 체험한다.
	노 래 와 춤 마 당	아름다운 우리 공연 함께 배우는 노래와 춤 누가 누가 잘하나	전문 단체가 중심이 된 공연을 감상하고 노래 장단 몸동작 등을 함께 배우며, 이를 실제로 발표하게 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놀이마당	춤과 놀이를 동시에 우리의 명예를 걸고	모두 함께 놀이에 참여하여 체력과 지혜를 경주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갖는다.
	창작마당	장원급제를 꿈꾸며 창작품을 내 손으로 역사의 기로에서	선조들의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봄으로써 창의적 정신을 계승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
	풀이마당	나의 주장은 배불러 못먹어도 난장의 세계로	마음껏 먹고, 이야기하고 신나게 즐기므로써 청소년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평 가 과 정		활동 수첩을 들고 비디오에 비친 내 모습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축제 참여에 흥미와 기쁨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과정 또는 마당에는 2~3개의 활동이 있으며 진행 과정의 각 마당에는 필요에 따라 각 활동 안에 과정 활동을 두었다. 또한 각 활동에는 활동 개요, 활동 목표, 준비 사항, 활동 방법, 유의 사항,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정 활동에는 유래, 진행 방법, 유의 사항, 참고 사항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전통 축제 한마당 활동 수련거리의 내용 구성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2) 모형 개발

〈표 I - 3〉 전통축제한마당 활동 모형(2박 3일 일정표)

시 간	첫 째 날	둘 째 날	세 째 날
06:00	홍겨운 축제의 장으로	기상 및 체조	기상 및 체조
07: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00		창작품을 내 손으로	장원급제를 꿈꾸며
09:00			
10:00	배볼터 못먹어도	누가 누가 잘 하나(발표)	
11:00			
12:00	임소식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온 동네를 하나로	노래와 춤마당(배우기)	역사의 기로에서
14:00	홍겨운 우리 혼례	민속놀이마당	난장의 세계로
15:00			
16:00	저녁식사	저녁식사	퇴소식
17:00	공연관람	발표 연습	가족의 품으로
18:00			
19:00			
20:00			
21:00	자유시간	자유시간	
22:00	취 침	취 침	

■ 활동 내용

① 온 동네를 하나로

- ▶ 내용 : 풍물을 울리면서 각종 깃발과 가장 의상 등을 한 행렬이 주위를 돌면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흥을 돋는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7).

② 흥겨운 우리 혼례

- ▶ 내용 : 전통적인 혼례 의식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전통 혼례가 갖는 우리 정신을 이해하고 신명과 풍요로움을 알 수 있도록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8).

③ 공연 관람

- ▶ 내용 : 전문인들이 펼치는 전통 노래, 춤 등의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예술적 감수성을 풍부히 하도록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0).

④ 창작품을 내 손으로

- ▶ 내용 : 탈, 도자기, 부채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기회를 갖는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6).

⑤ 배불러 못먹어도

- ▶ 내용 : 생 달걀이나 떡 등을 1분 내에 많이 먹게 하는 시합을 하여 우승한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주위 사람들과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9).

⑥ 노래와 춤 마당

- ▶ 내용 : 비교적 간단한 우리의 노래와 춤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도록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1).

⑦ 민속놀이 마당

- ▶ 내용 : 강강술래, 석전 놀이, 게 줄다리기 등을 통하여 민속 놀이에 대한 이해와 협동정신을 기른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3(과정 1), 활동 14(과정 3, 과정 5)).

⑧ 장원급제를 꿈꾸며

▶ 내용 : 전통적인 과거 시험 제도를 현대적으로 꾸며 청소년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지혜를 경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5).

⑨ 누가 누가 잘 하나

▶ 내용 : 노래, 춤, 악기 연습을 통하여 조별로 익힌 솜씨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서로 간의 단결심을 기르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2).

⑩ 역사의 기로에서

▶ 내용 : 청소년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역사 중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토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시각을 갖게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7).

⑪ 난장의 세계로

▶ 내용 :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면과 의상을 하고 즐거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과 노래, 의견 발표, 대화 등을 함으로써 평소에 가졌던 불만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20).

II.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한 의견 조사

1. 전통 축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1) 청소년 전통축제에 대한 느낌

청소년들의 전통 축제에 대한 느낌을 ‘정겹다’, ‘흥분된다’, ‘신난다’, ‘지루하다’, ‘어렵다’, ‘답답하다’의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1〉

전통 축제에 대한 느낌별 비교

(단위 : %)

느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계
정겹다	28.9	41.3	22.5	5.4	2.0	100.0
흥분된다	15.1	31.2	32.2	16.1	5.4	100.0
신난다	28.2	34.2	24.8	9.1	3.7	100.0
지루하다	6.8	15.9	28.7	36.1	12.5	100.0
어렵다	8.1	29.9	30.2	24.8	7.0	100.0
답답하다	7.4	16.2	25.9	29.0	21.5	100.0

조사 결과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한 느낌은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를 합하여, 정겹다 70.2%, 신난다 62.4%, 흥분된다 46.3%, 어렵다 38.0%, 답답하다 23.6%, 지루하다 22.7%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전통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답답하다’, ‘지루하다’ 등의 부정적인 느낌보다 ‘정겹다’, ‘신난다’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전통 축제에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통념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 전통 축제의 필요성 인식 정도

청소년 전통 축제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44.7%, ‘다소 필요하다’가 43.0%로, 전체적으로 볼 때 87.7%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전통 축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그저 그렇다’ 9.6%, ‘별로 필요없다’ 2.3%, ‘전혀 필요없다’ 0.3%의 응답을 보여 전통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은 2.6%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청소년 전통 축제의 필요성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성 별 ¹⁾						
남	44.7	42.4	8.2	4.7	.0	100.0
여	44.7	43.7	9.8	1.4	.5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39.3	47.6	10.7	1.9	.5	100.0
고등학교	57.4	34.0	6.4	2.1	.0	100.0
거주지별 ³⁾						
인천	64.6	32.3	3.0	.0	.0	100.0
충청도	35.0	45.8	14.2	5.0	.0	100.0
전라도	34.9	51.8	10.8	1.2	1.2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41.2	45.5	11.2	1.6	.5	100.0
아니오	50.4	39.1	7.0	3.5	.0	100.0
전 제	44.7	43.0	9.6	2.3	.3	100.0

주: 1) $\chi^2=3.44$, N.S. 2) $\chi^2=9.18$, N.S. 3) $\chi^2=33.74$, $p<0.01$

4) $\chi^2=5.08$, N.S.

각 변인별로는 거주지역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인천 지역 청소년의 96.9%가 청소년 전통 축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충청도 지역 청소년 80.8%, 전라도 지역 청소년

3) 청소년 전통 축제의 좋은 점

〈표 II-3〉 전통축제의 가장 좋은 점 (단위: %)

χ^2 : 1) $\chi^2=10.29$, N.S. 2) $\chi^2=8.54$, N.S. 3) $\chi^2=40.43$, $p<0.01$
 4) $\chi^2=6.86$, N.S.

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인천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청소년은 전통 축제의 좋은 점으로 각각 ‘전통 정신을 접할 수 있다’ (38.4%, 37.3%), ‘전통 놀이를 배울 수 있다’ (32.3%, 27.7%), ‘결속감을 느낄 수 있다’ (14.1%, 22.9%), ‘재미있다’ (12.1%, 2.4%), ‘참여 기회가 많다’ (3.0%, 1.2%)의 순으로 응답을 하여 전통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충청도 지역 청소년들은 ‘전통 놀이를 배울 수 있다’ (38.3%), ‘전통 정신을 접할 수 있다’ (30.8%), ‘참여 기회가 많다’ (15.8%), ‘결속감을 느낄 수 있다’ (9.2%), ‘스트레스 해소’ (5.0%), ‘재미있다’ (0.8%)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간에 차이를 보였다.

2. 전통 축제의 참여 실태

1) 참여 경험

청소년들이 학교, 청소년 단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축제에

〈표 II-4〉

청소년 축제 참여 경험

(단위 : %)

	있	다	없	다	계
성 별 ¹⁾					
남	43.5		56.5		100.0
여	52.1		47.9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50.5		49.5		100.0
고등학교	47.9		52.1		100.0
거주지별 ³⁾					
인 천	43.4		56.6		100.0
충청도	50.0		50.0		100.0
전라도	56.6		43.4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58.3		41.7		100.0
아니오	35.7		64.3		100.0
전 체	49.7		50.3		100.0

주 : 1) $\chi^2=1.46$, N.S. 2) $\chi^2=0.08$, N.S. 3) $\chi^2=3.15$, N.S.

4) $\chi^2=13.70$, $p<0.01$

참여해 본 경험은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이 49.7%,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50.3%로 나타나, 참여해 본 청소년과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는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축제 참여 경험이 58.3%,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35.7%로,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가 청소년 축제 참여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 단체별 참여 경험

청소년 단체, 각급 학교, 지역 사회에서 주최하는 전통 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축제는 ‘학교 축제’로 60.5%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단체 축제’(37.4%), ‘지역사회 축제’(15.4%)였고 청소년 단체나 지역사회 축제는 주로 TV나 비디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전통 축제 주관 단체별 참여 경험

(단위 : %)

주관단체	직접행사 참여	직접 구경	TV와 비디오	전혀 못보았음	계
청소년단체	37.4	14.8	30.0	17.8	100.0
학 교	60.5	19.9	6.1	13.5	100.0
지 역 사 회	15.4	15.8	30.5	38.4	100.0

학교 축제에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전통 축제의 경우 학생 신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며, 지역사회 향토축제에의 참여 경험이 낮고 전혀 참가해 보지 못한 청소년이 많게 나타난 것은 아직 전통 축제가 지역사회에서 정착 또는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활성화되었더라도 청소년들에게 공감 또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참여 동기

청소년들이 청소년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권유에 의해서’ (42.7%)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원해서’ (24.8%), ‘학교행사에 동원되어’ (19.6%), ‘친구의 소개’ 또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각각 4.5%, 4.5%), ‘대중 매체를 통해서’ (3.8%)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6〉

청소년 축제 참여 동기

(단위: %)

	친구소개	부모님 권유	대중매체	선생님	행사동원	스스로	계
성별 ¹⁾							
남	1.2	4.9	3.7	46.3	13.4	30.5	100.0
여	5.9	4.5	3.5	41.6	21.8	22.8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3.1	6.2	3.6	36.4	20.0	30.8	100.0
고등학교	7.9	1.1	3.4	57.3	19.1	11.2	100.0
거주지별 ³⁾							
인천	4.2	.0	1.0	78.1	8.3	8.3	100.0
충청도	6.4	6.4	9.2	27.5	29.4	21.1	100.0
전라도	2.5	7.4	.0	21.0	19.8	49.4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4.5	6.8	2.8	29.0	23.9	33.0	100.0
아니오	4.5	.9	5.5	64.5	12.7	11.8	100.0
전 체	4.5	4.5	3.8	42.7	19.6	24.8	100.0

주 : 1) $\chi^2=6.67$, N.S. 2) $\chi^2=22.14$, $p<0.01$ 3) $\chi^2=106.84$, $p<0.01$

4) $\chi^2=42.95$, $p<0.01$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스스로 원해서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고등학생이 11.2%인데 비해 중학생은 3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부모님의 권유’ (6.2%)가 ‘친구 소개’ (3.1%)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비해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권유’ (1.1%)보다 ‘친구 소개’ (7.9%)

거주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청소년은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권유’(78.1%)가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반면, 충청도 지역 청소년은 ‘학교 행사에의 동원’(29.4%),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권유’(27.5%), ‘스스로 원해서’(21.1%)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전라도 지역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스스로 원해서’(49.4%)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참여 정도

(단위 : %)

- 19 -

청소년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와 ‘활발한 편이다’로 응답한 청소년이 기획 과정에서는 43.8%, 준비 과정에서는 44.5%, 진행 과정에서는 56.9%, 평가 과정에서는 32.7%로 나타나, 전체 과정을 볼 때 축제의 진행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 평가 과정에는 참여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만족도

전통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전통 축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68.3%('매우 만족한다' 22.3%, '만족하는 편이다' 46.0%), '그저 그렇다'는 24.7%, '불만족한다' 6.7%, '매우 불만족한다'가 0.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 축제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성별과 거주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 변인에서는 남자의 경우 만족하는 청소년이 87.0%('매우 만족한

〈표 II-8〉 전통 축제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매우만족	만족하는 편임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	계
성 별 ¹⁾						
남	31.0	56.0	11.9	1.2	.0	100.0
여	19.2	42.1	29.4	8.9	.5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20.6	47.5	26.0	5.9	.0	100.0
고등학교	26.6	43.6	20.2	8.5	1.1	100.0
거주지별 ³⁾						
인 천	41.4	48.5	8.1	2.0	.0	100.0
충청도	10.8	40.0	35.0	13.3	.8	100.0
전라도	16.0	51.9	29.6	2.5	.0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17.8	48.1	26.5	7.0	.5	100.0
아니오	29.6	42.6	21.7	6.1	.0	100.0
전 체	22.3	46.0	24.7	6.7	.3	100.0

주: 1) $\chi^2=19.54$, $p<0.01$ 2) $\chi^2=4.97$, N.S. 3) $\chi^2=58.24$, $p<0.01$

4) $\chi^2=6.20$, N.S.

다’ 31.0%, ‘만족하는 편이다’ 56.0%), 불만족스러워하는 청소년이 1.2% (‘불만족 한다’ 1.2%, ‘매우 불만족한다’ 0.0%)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만족스러워 하는 청소년이 61.3% (‘매우 만족한다’ 19.2%, ‘만족하는 편이다’ 42.1%), 불만족스러워하는 청소년이 9.4% (‘불만족 한다’ 8.9%, ‘매우 불만족한다’ 0.5%)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 청소년보다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청소년의 89.9% (‘매우 만족한다’ 41.4%, ‘만족하는 편이다’ 48.5%), 충청도 지역 청소년의 50.8% (‘매우 만족한다’ 10.8%, ‘만족하는 편이다’ 40.0%), 전라도 지역 청소년의 67.9% (‘매우 만족한다’ 16.0%, ‘만족하는 편이다’ 51.9%)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청소년은 인천 지역 청소년의 2.0% (‘불만족 한다’ 2.0%, ‘매우 불만족한다’ 0.0%), 충청도 지역 청소년의 14.1% (‘불만족 한다’ 13.3%, ‘매우 불만족한다’ 0.8%), 그리고 전라도 지역 청소년의 2.5% (‘불만족 한다’ 2.5%, ‘매우 불만족한다’ 0.0%)로 나타나 인천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충청도 지역 청소년이 만족도가 가장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축제 참가 의사

기회가 생기면 축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반드시 참여하겠다’ (35.2%), ‘잘 모르겠다’ (11.3%), ‘참여할 생각이 없다’ (4.7%)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축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시간이 나면 참여하겠다’ (48.8%)와 ‘반드시 참여하겠다’ (35.2%)를 합쳐 84.0%로 청소년들이 축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축제에 참여할 때 시간적인 여건을 가장 크게 고려한다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아직은 공부를 비롯한 학교 생활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표 II-9〉

축제 참가 의사

(단위: %)

	반드시 참여	시간나면참여	잘 모르겠다	참여 않겠다	계
성 별 ¹⁾					
남	36.5	49.4	10.6	3.5	100.0
여	34.6	48.6	11.7	5.1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37.6	47.8	10.2	4.4	100.0
고등학교	29.8	51.1	13.8	5.3	100.0
거주지별 ³⁾					
인천	39.4	47.5	10.1	3.0	100.0
충청도	29.4	45.4	18.5	6.7	100.0
전라도	38.6	55.4	2.4	3.6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36.4	49.7	11.2	2.7	100.0
아니오	33.3	47.4	11.4	7.9	100.0
전 체	35.2	48.8	11.3	4.7	100.0

주: 1) $\chi^2=0.47$, N.S. 2) $\chi^2=2.10$, N.S. 3) $\chi^2=16.18$, $p<0.05$ 4) $\chi^2=4.42$, N.S.

불구하고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35.2%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별로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세 지역 청소년 모두 ‘시간이 나면 참여하겠다’ (인천 47.5%, 충청도 45.4%, 전라도 55.4%)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축제 참가 의사는 인천 지역 청소년이 86.9%, 충청도 지역 청소년이 74.8%, 전라도 지역 청소년이 94.0%로 전라도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 축제에 대한 참가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통 축제의 문제점

1)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때에 따라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시기를 몰라서’ (24.5%),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3.5%), ‘관심이 없어서’ (12.9%), ‘행사 장소가 멀어서’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청소년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이 84.0%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행사 시기를 모른다거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24.5%와 23.5%로 나타난 것을 보면 홍보와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가 45.8%로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재미가 없어서’ (20.5%), ‘시기를 몰라서’ (19.3%), ‘관심이 없어서’ (10.8%), ‘행사 장소가 멀어서’ (3.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시기를 몰라서’ (26.3%)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시간이 없어서’ 24.9%, ‘재미가 없어서’

〈표 II-10〉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관심부족	시간부족	재미 없어서	시기를 몰라서	장소가 멀어서	계
성 별 ¹⁾						
남	10.8	45.8	20.5	19.3	3.6	100.0
여	13.9	24.9	24.9	26.3	10.0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10.9	34.8	20.9	22.9	10.4	100.0
고등학교	17.6	23.1	28.6	27.5	3.3	100.0
거주지별 ³⁾						
인천	17.2	33.3	10.1	35.4	4.0	100.0
충청도	14.5	21.4	33.3	22.2	8.5	100.0
전라도	5.1	42.3	25.6	14.1	12.8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10.1	34.1	26.8	19.6	9.5	100.0
아니오	17.4	26.1	18.3	32.2	6.1	100.0
전 체	12.9	31.0	23.5	24.5	8.2	100.0

주 : 1) $\chi^2=13.53$, $p<0.01$ 2) $\chi^2=10.92$, $p<0.05$ 3) $\chi^2=37.34$, $p<0.01$

4) $\chi^2=12.09$, $p<0.05$

24.9%, 그 밖에 ‘관심이 없어서’ (13.9%), ‘행사 장소가 멀어서’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34.8%)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행사 시기를 몰라서’ (22.9%),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0.9%), ‘관심이 없어서’ (10.9%), ‘행사 장소가 멀어서’ (10.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8.6%)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시기를 몰라서’ (27.5%)도 많았다. ‘시간이 없어서’에는 고등학생이 23.1%로 중학생의 34.8%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고등학생은 시간 부족 등 외적 조건보다 축제 자체의 재미 등 축제의 내용적인 면을 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인천 지역 청소년은 ‘시기를 몰라서’ (35.4%), ‘시간이 없어서’ (33.3%), ‘관심이 없어서’ (17.2%),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0.1%), ‘장소가 멀어서’ (4.0%)의 순서로 나타났고, 충청도 지역 청소년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33.3%), ‘시기를 몰라서’ (22.2%), ‘시간이 없어서’ (21.4%), ‘관심이 없어서’ (14.5%), ‘장소가 멀어서’ (8.5%)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라도 지역 청소년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에 42.3%로 가장 높은 응답을 했고, 그 외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5.6%), ‘시기를 몰라서’ (14.1%), ‘장소가 멀어서’ (12.8%), ‘관심이 없어서’ (5.1%)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청소년 단체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단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가 34.1%이고 ‘행사 시기를 몰라서’가 19.6%인 반면,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는 32.2%의 청소년들이 ‘행사 시기를 몰라서’, 26.1%의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어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축제 등 여러가지 청소년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청소년 단체 활동 경험이 청소년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축제에 참여해 본 경험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재미가 없어서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26.8%로 두번째로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

추어 보완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청소년 축제의 문제점

청소년 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25.7%의 청소년이 ‘홍보 부족’을 들고 있었으며 비슷한 비율로 25.3%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기회가 적은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행사성 위주로 동원된다’ (23.0%), ‘진부한 내용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9.3%), ‘함께 배우기 어렵다’ (7.3%)의 순서로 나타나 축제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일도 중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 축제의 문제점 중 ‘행사 위주로 동원된다’,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적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세 가지 문항은 넓게 보면 청소년이

〈표 II - 11〉

청소년 축제의 문제점

(단위 : %)

	진부한 내용	행사위주 동원	어려운 내용	적은 참여기회	홍보부족	청소년이 비주체	계
성 별 ¹⁾							
남	10.7	22.6	6.0	14.3	38.1	8.3	100.0
여	8.9	22.9	7.5	29.9	21.0	9.8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6.8	24.9	6.8	25.9	23.9	11.7	100.0
고등학교	15.1	19.4	6.5	24.7	30.1	4.3	100.0
거주지별 ³⁾							
인천	10.1	24.2	3.0	16.2	41.4	5.1	100.0
충청도	11.8	23.5	11.8	27.7	16.0	9.2	100.0
전라도	4.9	20.7	6.1	32.9	20.7	14.6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7.6	26.5	7.0	28.1	21.1	9.7	100.0
아니오	12.2	17.4	7.8	20.9	33.0	8.7	100.0
전 체	9.3	23.0	7.3	25.3	25.7	9.3	100.0

주 : 1) $\chi^2=13.13$, $p<0.05$ 2) $\chi^2=10.18$, N.S. 3) $\chi^2=33.23$, $p<0.01$

4) $\chi^2=9.73$, N.S.

주체가 되어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것에 해당하는 응답을 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57.6%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이 직접 행사의 주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각 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청소년 축제의 문제점으로 ‘홍보 부족’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행사성 위주로 동원된다’ (22.6%), ‘직접 참여 기회 부족’ (14.3%), ‘진부한 내용’ (10.7%),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8.3%), ‘어려운 내용’ (6.0%)의 순서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직접 참여 기회 부족’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행사성 위주의 동원’ (22.9%), ‘홍보 부족’ (21.0%),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9.8%), ‘진부한 내용’ (8.9%), ‘어려운 내용’ (7.5%)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청소년의 경우 ‘홍보 부족’ (41.4%), ‘행사성 위주 동원’ (24.2%), ‘직접 참여 기회 부족’ (16.2%), ‘진부한 내용’ (10.1%),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5.1%), ‘어려운 내용’ (3.0%)의 순으로 청소년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충청도 지역 청소년의 경우 ‘직접 참여 기회 부족’ (27.7%), ‘행사성 위주 동원’ (23.5%), ‘홍보 부족’ (16.0%), ‘진부한 내용’ (11.8%), ‘어려운 내용’ (11.8%),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9.2%)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으며, 전라도 지역 청소년은 ‘직접 참여 기회 부족’ (32.9%), ‘행사성 위주 동원’ (20.7%) 및 ‘홍보 부족’ (20.7%),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14.6%), ‘어려운 내용’ (6.1%), ‘진부한 내용’ (4.9%)의 순으로 축제의 문제점을 들었다.

4. 전통 축제의 활성화 방안

1)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48.8%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7.2%의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내용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청소년들(96.0%)은 청소년 전통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내용과 자신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청소년의 경우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단위 : %)

4) $\chi^2=9.66$, $p<0.05$

70.7%,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29.3%로 나타났으며, 충청도 지역 청소년의 경우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55.5%, ‘적극 권장해야 한다’ 36.1%, ‘하지 말아야 한다’ 8.4%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도 지역 청소년의 경우는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56.6%, ‘적극 권장해야 한다’ 41.0%, ‘하지 말아야 한다’ 1.2%, ‘기타’ 1.2%의 응답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 전통 축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지역 청소년 보다는 현재의 전통 축제 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서는 단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53.2%, ‘적극 권장해야 한다’ 44.1%, ‘하지 말아야 한다’ 2.2%, ‘기타’ 0.5%의 결과를 보였고,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는 ‘적극 권장해야 한다’ 56.5%,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37.4%, ‘하지 말아야 한다’ 6.1%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보다 축제의 내용을 새롭게 변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단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축제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아 축제의 내용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축제 시기

축제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방학 때’ (68.4%)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11.6%), ‘민속절’ (10.3%), ‘학기중 주말’ (5.6%), ‘어린이날’ (2.0%)이나 ‘운동회’ (2.0%)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거주 지역 변인만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방학 때’에 인천 지역 청소년이 76.8%로 충청도 지역 청소년의 64.2%, 전라도 지역 청소년의 64.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민속절’에는 충청도 지역 청소년이 13.3%로 기타 지역 청소년(인천지역 청소년 7.1%, 전라도 지역 청소년 9.8%) 보다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II - 13〉

축제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

(단위 : %)

	방학	어린이날	운동회	학기중 주말	민속절	기 타	계
성 별 ¹⁾							
남	70.6	2.4	1.2	10.6	7.1	8.2	100.0
여	67.8	1.9	2.3	3.7	11.2	13.1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69.3	2.4	2.0	5.4	8.3	12.7	100.0
고등학교	67.0	1.1	2.1	6.4	13.8	9.6	100.0
거주지별 ³⁾							
인천	76.8	1.0	3.0	8.1	7.1	4.0	100.0
충청도	64.2	2.5	.8	1.7	13.3	17.5	100.0
전라도	64.6	2.4	2.4	8.5	9.8	12.2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69.0	2.1	1.6	5.3	7.5	14.4	100.0
아니오	67.5	1.8	2.6	6.1	14.9	7.0	100.0
전 체	68.4	2.0	2.0	5.6	10.3	11.6	100.0

주 : 1) $\chi^2=7.84$, N.S. 2) $\chi^2=3.28$, N.S. 3) $\chi^2=19.81$, $p<0.05$

4) $\chi^2=7.67$, N.S.

3) 축제 기간

축제의 진행에 가장 적합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일 정도’가 58.3%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2일 정도’ (21.0%), ‘4일 이상’ (18.7%), ‘1일 미만’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는 모든 변인의 경우에 적절한 축제 기간으로 ‘3일 정도’를 가장 많이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2일 정도’와 ‘4일 이상’에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2일 정도’와 ‘4일 이상’의 경우만 비교해 보면, ‘2일 정도’가 더 적합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성별로는 여자,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로는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였으며, 반대로 ‘4일 이상’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충청 전라도 지역 청소년보다는 인천 지역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는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로 나타났다.

〈표 II-14〉

축제 기간

(단위: %)

	1일 미만	2일 정도	3일 정도	4일 이상	계
성 별 ¹⁾					
남	2.4	15.3	52.9	29.4	100.0
여	1.9	22.5	61.0	14.6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2.4	23.4	58.0	16.1	100.0
고등학교	1.1	15.1	59.1	24.7	100.0
거주지별 ³⁾					
인천	.0	8.2	58.8	33.0	100.0
충청도	3.3	30.8	55.8	10.0	100.0
전라도	2.4	21.7	61.4	14.5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1.6	25.8	58.1	14.5	100.0
아니오	2.6	13.2	58.8	25.4	100.0
전 체	2.0	21.0	58.3	18.7	100.0

주: 1) $\chi^2=9.44$, $p<0.05$ 2) $\chi^2=5.29$, N.S. 3) $\chi^2=32.68$, $p<0.01$ 4) $\chi^2=10.27$, $p<0.05$

4)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 전통 축제 프로그램으로 가장 흥미있는 내용과 가장 필요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5〉

가장 흥미있는 내용과 가장 필요한 내용

	가장 행렬	풍물 공연	민속 극	민속 춤	민속 노래	길놀이	전통 의례	비디오 영화 상영	공개 토크	초청 강습	민속 경연	민속 놀이	민속 체육 대회	민속 장터	전시 회	계
흥미	10.9	17.3	4.7	5.2	6.2	3.5	2.0	11.9	2.5	1.5	2.5	11.4	8.9	7.0	4.5	100.0
필요	1.3	6.6	5.2	8.4	7.7	1.3	11.8	2.2	13.0	6.1	4.9	15.7	9.1	1.5	5.2	100.0

청소년들이 가장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응답한 것은 17.3%의 청소년이 뽑은 ‘풍물공연’이었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 영화 상영’ (11.9%), ‘민속 놀

이' (11.4), '가장 행렬' (10.9%), '민속 체육 대회'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15.7%의 청소년이 '민속놀이'를, 그 외에 '공개토론' (13.0%), '전통의례' (11.8%), '민속 체육 대회' (9.1%), '민속춤'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안에 든 프로그램들을 비교해 보면 흥미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택되지 않은 것에 풍물 공연, 비디오 영화 상영, 가장행렬이 있었고, 반대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흥미가 없는 프로그램에 공개토론, 전통의례, 민속춤 등이 있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소년들이 흥미있어 하는 프로그램에는 민속놀이, 민속체육대회가 있었다.

각 프로그램별로 청소년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행렬, 공개토론, 전통의례, 비디오 영화 상영, 초청 강습 등이었다. '가장행렬' 프로그램에 대해 10.9%의 청소년이 가장 흥미있어 하는 반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3%에 그쳤으며, '공개토론'의 경우도 흥미있어 하는 청소년은 2.5% 밖에 되지 않았으나 13.0%의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비디오 영화 상영' 프로그램은 가장 흥미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1.9%였으나,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2.2%였고, 전통의례의 경우 2.0%의 청소년이 흥미있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1.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청소년 축제가 실시된다면 참여하거나 권하고 싶은 활동에는 ① 우리 음식(전통음식) 만들기, ② 전통 혼례, ③ 역사 탐방, ④ 민속공예품 만들기, ⑤ 전통의상이나 악기 만들기, ⑥ 예절교육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는 청소년들이 전통 음식 만들기, 민속 공예품 만들기, 전통 의상이나 악기 만들기 등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지 탐방도 전통 축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청소년 전통 축제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전통 축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43.1%의 청소년이 ‘청소년들에게 전통 축제 참여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31.4%의 청소년이 ‘전통 문화와 현대 축제를 접합해야 한다’, 17.7%의 청소년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7.4%의 청소년이 ‘옛 조상들의 축제 모습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전통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기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6〉 청소년 전통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

	옛모습 계승	현대축제와 접합	참여기회 부여	청소년 요구반영	기 타	계
성 별 ¹⁾						
남	9.6	41.0	34.9	14.5	.0	100.0
여	6.5	28.0	46.3	18.7	.5	100.0
학교급별 ²⁾						
중학교	8.8	30.4	42.6	17.6	.5	100.0
고등학교	4.3	34.4	43.0	18.3	.0	100.0
거주지별 ³⁾						
인천	8.2	29.6	49.0	13.3	.0	100.0
충청도	8.4	27.7	45.4	18.5	.0	100.0
전라도	4.9	39.0	32.9	22.0	1.2	100.0
단체가입 여부 ⁴⁾						
예	4.3	34.1	43.8	17.3	.5	100.0
아니오	12.3	27.2	42.1	18.4	.0	100.0
전 체	7.4	31.4	43.1	17.7	.3	100.0

주 : 1) $\chi^2=6.71$, N.S. 2) $\chi^2=2.56$, N.S. 3) $\chi^2=10.58$, N.S.

4) $\chi^2=7.84$, N.S.

또한 옛 축제의 모습을 그대로 전수받기 보다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잘 조화시켜 전통축제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각국의 청소년 축제 사례

영천 문화 예술제

이 장 섭*

1. 머리말

이 글은 전국의 향토축제 중 영천문화제를 개관한 것이다. 영천문화제의 내용이 다른 지역 향토축제의 그것과는 달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내용이 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선택되어졌다. 주 내용은 1992년에 행해진 제10회 영천문화예술제를 현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밖에 1981년 제1회 영천문화예술제부터 1991년 제9회 예술제까지의 행사자료를 부가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의 축제문화는 흔히 중국의 史書 〈三國志〉의 魏志東夷傳에 인용된 제천의례에서 기원이 찾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축제, 특히 지역축제는 위의 축제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상을 지닌다. 우선 그러한 축제의 역사적 연속성이 증명되어 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지역 향토축제가 대부분 70년대 이후에 출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관심이 표출된 여러 현상중의 하나가 향토축제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70년대 이래 사회 전반에 일기 시작한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에서 시작된다. 19세기 말 이래 서구문화와의 접촉으로 우리 문화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뒤이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20세기 전반기의 식민지 지배는 우리의 전통적 관습의 강제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폐지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유입은 서구화를 재촉하였고, 60년대 산업화의 기치를 내건 정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서구문화의 유입은 문화적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게 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각계에서 일기 시작하였고, 그 현상의 한 부분이 향토축제로 구체화되었고 현재 전국각지에서 300여 개가 시행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재창조라는 명목하에 시작된 향토축제의 정치적 배경은 여기서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각 지역의 연중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향토축제가 앞세우는 목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향토문화의 창달, 전통풍속 전승, 역사인물 또는 사건기념, 그리고 시·군민 화합이 대부분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향토축제의 명칭을 앞세우되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모토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우선됨을 볼 수 있다.

다만 전통문화의 계승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계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과거 문화현상의 재현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의 특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행사가 향토축제의 공통된 점이라면,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것은 그 차이이다. 이 점에서 영천문화제는 영천의 지역적 문화전통을 계승하되 현재의 지역의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독특한 양상을 띤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게 된 배경이다.

2. 영천 개관

1) 역사·지리적 배경과 인구학적 구조

영천은 경상북도 남동부 중앙에 위치하며 지형은 완전한 분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일찌기 부족국가 시대에 골별이었는데, 골별이 신라에 병합되어 경주의 외곽 방어지역이 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에는 임고로 불렸고, 고려 초기에 도동과 임천의 두 현을 아울러서 영주가 되었다. 영천이란 지명은 조선 왕조 태종 13년에 자리잡는다.

현재 영천군은 1개의 시(영천시)와 1개의 읍,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911.5Km²이다. 영천은 대도시인 대구직할시와 관광지인 경주시, 공업지역인 포항시의 그늘에 가려 개발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경상북도의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다.

1981년 7월 영천군에서 영천읍이 떨어져 나가 시로 승격되어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나뉘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금호강을 끼고 있는 영천군은 주남평야, 우호평야, 장천평야, 오미평야 같은 기름진 들이 널려 있는 탓에 경제 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주로 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독특한 현상의 하나는 1953년 큰 규모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영천시는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영천 사람들은 영천이 좀처럼 공업화 될 수 없는 이유로 영천이 이미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어 산업 시설이 발을 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든다. 공업화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자연이 나라의 인구 이동형태인 ‘이농현상’이 영천에도 나타나 영천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표는 영천의 인구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1〉 영천의 인구 동향

연 도	인 구 수	가 구 수
1982	157,831	32,287
1986	140,389	32,829
1991	120,974	33,163

자료 : 경북 통계 연보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천의 인구수는 10년 사이에 3만 6천여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해마다 3천 6백명꼴로 줄어든 셈이 된다. 91년 인구분포는 현재의 총인구 120,974명 중 33% 가량이 군전체 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영천군의 인구밀도는 1Km²당 86명이고, 영천시의 인구밀도는 611명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인구의 유동도 그리 활발하지 않아 영천은 외부인이 많지 않고, 대개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구가 한 해에 3,600명 꼴로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

려 가구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이는 영천의 핵가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핵가족사회에서는 당연 놀이 문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2) 산업구조

영천의 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인구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현재 영천의 농업 형태는 점차 논이 줄어들고 밭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천시가 대구직할시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천이 대구시의 근교농업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의 종류도 예전에 사과와 누에에서 시설농작물인 딸기, 토마토 등의 과일과 포도, 양파 등 채소류를 많이 경작하고 있다. 사과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이 지역의 사과나무가 모두 심은지 오래되고 품종 또한 재래종이어서 생산량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누에는 198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많은 생산량을

〈표 III-2〉 영천인구의 산업별 종사자 수 및 경지면적

	경지면적(ha)	논(ha)	밭(ha)	공장수	종업원(명)
1982	17,813	10,388	7,425	42	1,037
1986	17,567	10,140	7,427	63	3,095
1992	18,147	10,021	8,126	160	7,436

자료 : 경북 통계 연보

기록하며 이 지역 주민의 주 소득원이 되었지만 주 수입국인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보다 더 싼 값에 생사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쇠퇴하여, 현재는 누에의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장은 그리 큰 규모의 것들은 없고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공장은 기계 공장으로 91년 현재 34개의 공장에 4,0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섬유공장으로 역시 91년 현재 51개 공장에 1,231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영천은 현재 산업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영천의 낙후성은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지역경제 활동의 낙후성을 측정하는 간접지표로서 재정자립도와 1인

은 비단 영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군교 농촌지역 변화의 두드러진 모습이다.

현재 영천 문화시설은 2개소 총 수용인원 900여명으로 인구 120,974명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반면, 연 관람인원이 86년 10,312명, 91년 23,281명으로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많이 늘어 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영천 전체의 문화 예술 행사는 1년에 한번 있는 문화예술제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다. 체육대회는 면단위로 선수들이 출전해서 치뤄지며 엄격히 말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행사는 이 체육대회가 유일한 것이다.

3. 영천문화예술제 개관

1) 주관 부서

영천문화예술제는 1981년에 제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995년 13회를 맞이하게 된다. 행사의 계획과 기획은 영천문화원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데, 영천문화원은 명예직인 이사가 있고 아래로 소장등 직원 4명의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영천문화원의 예산은 시와 군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모든 재정지출과 행사기획은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행사 형태

행사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관습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제이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제가 다른 하나이다.

(1) 전통민속제 유형

이는 제1회인 1981년과 제7회 1987년에 행해진, 지금까지 두번 시행된 유형으로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보편화된 전통적인 문화예술제의 형태를 그대로 갖춘것이라 할 수 있다. 행사 구성은 전야제, 영천 민속놀이인 석전과 고나무싸움을 비롯하여 씨름, 농악놀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로는 이

때까지 10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 2번 밖에 못 하였다. 그 이유로는 예산상의 문제와 주민들의 참여도, 관계기관과의 비협조 등이라고 문화원 직원은 밝혔다. 영천의 고유놀이는 별 다른 것이 없고 석전과 고나무 싸움이 있는데 그 유래와 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전(石戰)〉

과거에 정월 보름날, 혹은 그 이튿날까지 벌어지는 민속놀이로,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동네가 돌을 던져 승부를 가르는 경기로 밀려 도망하는 쪽이 패하게 된다. 때로는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네에서 윗동네 아랫 동네로 갈라 겨루는 편싸움의 형태도 있다. 놀이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장년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되어 겨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나무싸움〉

고싸움이라고도 한다. 정초부터 보름날 전후까지 벌어지는 행사로, 마을이 두편으로 갈라 줄을 만들어 들판이나 강변에서 서로 겨룬다. 이때, 줄 중간부분에 방망이를 다듬어 끼우고 줄다리를 하는데, 줄을 끌어간 편의 한 청년이 방망이를 뽑아 도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청년을 잡으러 오는 반대편 사람들을 잡고 늘어진다. 승부는 숨겨놓은 방망이를 못 찾으면 패하게 된다. 진 편은 이긴 편을 잘 대접하고, 어떤 경우에는 초벌 논매기를 대신 해주기도 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위와 같은 민속놀이의 재현과 농악 등이 중심이 되어 제법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한다. 이 유형은 군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마당이 되었고, 전야제까지 포함해서 제법 볼만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화예술제가 아주 중단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기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열릴 것이라는 문화원 직원의 말이 있었다.

(2) 청소년대상 문화예술제 유형

다른 형태의 영천문화 예술제는 앞의 형태와 규모와 대상면에서 많이 다르다. 먼저 행사의 구성을 보면, '민속 위주의 굿직한 행사들은 모두 빠지고 청소년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자연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거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말그대로의 청소년 문화제로 바뀌었다. 행사후 각 시상 작품을 수록한 수상집을 보면 이런 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우리 고향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사업으로 행하여지는 영천 문화 예술제... 광범위한 문화활동 가운데 청소년들의 참다운 가치관과 자기 실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문화예술제...』

위 인용에서 보듯이 분명 행사의 성격은 관이하게 달라졌지만 이 변화에 대한 문헌을 확인할 수 없어서 왜 변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아래에 기술되었듯이 지역사회의 변화가 영천문화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듯하다. 변화시기는 문화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제 2회때 부터 바뀌었다.

행사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졌으므로 당연히 참가층도 축소되었다. 직접 참가자는 학생 외에는 거의 없었고 관람객도 참가자의 학부모와 일부 공연장 주변의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관람하는 것이 청소년층 이외 참가자의 전부였다.

그러나 1991년까지는 각 면단위로 농악 경연대회를 하였지만, 참가자들의 연습문제, 호응도 문제로 올해 10회 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농악이 빠짐으로써 영천문화제가 여러 계층의 축제에서 완전히 청소년 중심의 축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농악이 유일하게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전통문화의 성격이 강한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농악이 10회부터 사라지게 됨으로 행사의 성격이 완전히 청소년들의 단순한 경연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농악이 빠지게 된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올해 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참가팀의 축소를 들 수 있다. 농악경연대회는 면단위의 출전팀으로 이뤄지는데, 영천이 쌀 농사가 점차 줄어들고 대구의 근교 농업지역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가을 추수 후에도 농사일이

많아 농악 연습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행사 자체의 성격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영천문화예술제 자체가 청소년 위주의 행사로 변해서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되었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농악경연대회에 대한 행사 주최인 문화원측의 배려가 미흡하여 농악 참가자들의 참가 의욕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4. 제 10회 영천문화 예술제

제 10회 영천문화 예술제는 1992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 까지 나흘간 이루어졌다. 행사일정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행사가 청소년을 위주로 한 것 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이 끼지 않아 결국 그들을 위한 행사이지만 토요일 오후에 잠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축제행사의 목표는 영천문화 예술제 취지문에 밝혀져 있고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한 경제생활과 고도화된 현대의 문명앞에 반대로 우리들의 정신문화는 점차 상실해가는 위기를 맞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참을 개혁하기 위해 비록 조출하나마 이 제전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1) 행사의 내용

행사는 성격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글 백일장, 미술 실기 대회, 서예대회, 웅변대회, 동화구연대회, 음악 경연대회, 문화재 연구 발표회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전시회, 연극발표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발표회 등의 특별행사이다.

(1) 청소년 예술행사

예술 행사는 문화원에서 각급 학교에 참가요청 공문을 보내면 학교측에서 이에 응하여 우수 학생을 보내어 같은 날 문화원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반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 예술 행사는 구경꾼의 호응도 거의 없어 일반 학생들은 시상식을 통해서 그저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 이런 사실은 설문조사가 뒷받침을 해주는데 설문지 6번 문항의 결과로 다른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행사를 묻는 물음에 모두 이 예술 행사가 지적되었다. 특히 문화제발표회(30.1%) 웅변대회(32%) 동화구연대회(30.1%) 등이 많이 지적된다.

일반인들의 참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알고 있었고 행사 내용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참가 의욕이 없었는데 일반인으로써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시각도 “그저 글 좀 할 줄 아는 노인네 몇명이 하는 것” 정도였다. 다음표는 영천 문화원의 참가자 보고서이다.

〈표 Ⅲ-4〉 영천 문화원 참가자 보고서

	미 술	동화구연	백일장	서 예	웅 변	음악경연	문화제	합 계
유치부	445	7	·	·	·	·	·	452
국 민	1,461	·	608	97	11	47	13	2,237
중 등	138	·	166	35	6	16	·	361
고 등	53	·	103	8	8	1	·	173
합 계	2,097	7	877	140	25	54	13	3,223

자료 : 영천문화원, 1992

(2) 청소년 특별행사

반면에 특별행사는 주최와 기획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성격이 좀 더 자유롭고 청소년들의 취향에 어느정도 부응하는 것이어서 참여도도 꽤 높고 호응도 상당하다. 행사내용은 미술전시회, 연극 발표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축제로 행사수로는 예술행사에 비해 적다. 그리고 성격도 예술행사가 영천문화 예술제의 본행사라면 이 특별행사는 말그대로 특별행사인 셈이다.

행사별로 약간의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미술전시회〉

문화원에서 발행한 행사 일정표의 소개를 보면 “영천시·군 중등 미협전’

으로 소개되어 있다. 조사중에 미술을 전공하는 영천여고 학생에게 이 미술전시회에 관해 몇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참 좋긴 좋은데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연극발표회〉

연극 발표회는 학생들이 연극을 공연하는 것인데 인기가 꽤 높다. 해마다 두 팀이 참가를 하는데 올해는 영천지구 보이·걸스카우트 연장대와 영천학생 유도회에서 참가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 축제〉

이 행사가 가장 호응이 좋은 행사이다. 참여도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단순히 노래자랑이 아니라 연주 발표와 호신술 시범같은 행사와 같이 행해진다.

행사장은 주로 영천문화원 건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술 행사는 모두 문화원 소강당, 문화원 광장에서 낱짜를 달리하면서 치러졌고, 특별행사는 문화원 전시실과 시민회관 보다 규모가 큰 곳에서 치러졌다.

5. 영천문화제 여론 조사

영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해 보았다. 영천문화 예술제의 주 참여층인 청소년들에게는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인들에게는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 학생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영천문화 예술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이 직접 참가하거나 구경꾼으로서 영천문화 예술제를 접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영천문화 예술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 영천문화 예술제에 대한 일괄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둘째, 대상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한 조사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 설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리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설문을 작성, 먼저 6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많은 결점이 발견되어 결국 애매한 문제와 방향이 어긋나는 문제를 수정하여야 했던 것이다.

먼저 설문은 주 참가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영천여고 2학년 1반 학생들을 표본으로 삼았으며 설문에 응한 인원은 53명이다. 인터뷰는 일반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10명을 하였다. 인터뷰는 10명 밖에 못하였기 때문에 결론의 신빙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

먼저 설문 조사의 결과는 대체로 영천문화 예술제가 다른 문화제와 구별되는 독특함은 없지만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참여율과 참가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영천시·군청과 문화원같은 기관을 보는 시각과 관심도 근소한 차이지만, 이 행사를 함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별다른 문화시설이나 행사가 없는 영천에서 영천문화 예술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층에 대한 문화적인 비중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반면에 인터뷰 조사는 응답결과가 상당히 미비했다. 면접수도 적었고, 조사 대상인 일반인 및 노년층의 행사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일반층의 무관심이라는게 맞겠지만 그들이 무관심하게 된 것은 행사 성격의 변화라 하겠다. 모두들 영천문화예술제를 알고 있지만 참여해 본 적은 전혀 없었으며, 그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더 이상 상세한 조사는 불가능했고 몇 해를 거슬러 치러졌던 영천문화예술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전부였다.

인터뷰와 설문의 결과로 영천문화 예술제는 일단은 청소년문화 예술제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반면에 그것은 일반 및 노년층에게서 소외됨으로 온전한 군단위의 문화 예술 행사로서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영천의 문화행사가 10월에 행해지는 것이외는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영천 군민 전체의 문화행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행사에 묻혀 있는 고유의 놀이 문화도 이대로 지속될 경우에는 문헌상으로나 확인할 수 있는 놀이로 남고 말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설문지 문항은 모두 8개로 이루어 졌는데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행사에 가지는 관심도를, 4번부터 6번까지는 영천 문화 예술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의견을, 7, 8번은 주최측과 행사 성과를 묻는 질문이었다.

1. 영천문화 예술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1) 없다(20%) 2) 1번(38%) 3) 2-3번(33%) 4) 4번 이상(7.5%)

2. 직접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면

1) 기쁘게 참가한다(68%) 2) 내키지는 않지만 참가한다(23%)

3) 거절한다(13.2%)

3. 가장 인상깊었던 행사는?

1) 미술전시회(11%) 2) 연극 발표회(20%) 3) 청소년 음악축제(51%)

4) 기타(0%)

4.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1) 전군민의 행사로 돌려져야 한다(17%) 2) 이대로가 알맞다(9.4%)

3) 청소년 위주의 행사로 보강, 균형야 한다(73.5%)

5. 행사가 다른 지방의 행사와 구분되는 독특한 점이 있는가?

1) 별 차이 없다(96.2%) 2) 독특한 면이 있다(3.7%)

6. 다음 행사중 불필요하여 다른 행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두 개만 고르시오.

1) 한글 백일장(20%) 2) 미술 실기대회(8.7%) 3) 서예대회(17%)

- 4) 웅변대회(32%) 5) 동화구연대회(30.1%) 6) 음악경연대회(11%)
 7) 문화재연구발표(30.1%) 8) 미술전시회(1.8%) 9) 연극발표회(5.6%)
 10) 청소년음악제(5.6%)

7. 영천문화 예술제는 어떤 행사인가?

- 1) 꼭 필요한 행사이다(32%) 2)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유익하다(60%)
 3) 별로 필요없다(5.6%) 4) 규모를 많이 축소해야 한다(1.8%)

8. 모든 행사는 영천문화원에서 계획, 준비했습니다. 행사후 영천 문화원에
 대해 가지게 된 생각은? 각 문항에 O, X를 하시오.

- 1) 영천문화원이 개최하는 다른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O : 47.1% X : 41.5% 무답 : 11%)
 2) 영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관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O : 56.6% X : 30.1% 무답 : 13.2%)
 3) 문화원이나 시청 같은 기관들에 대해 가졌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다.
 (O : 24.5% X : 58.4% 무답 : 16.9%)
 4) 행사준비나 기획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O : 64.1% X : 20.7% 무답 : 15%)

미국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와 미주 한인 사회의 전통 문화 축제

원 영 준*

1. 서 론

한국은 “세계화”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세계화를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외래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가치관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 또한 그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의 청소년들은 우선 한국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 및 한국적인 놀이문화에 뿌리를 둔 상태에서 외래문화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한국의 문화를 국제적인 무대에 소개하여 세계속의 한국을 만들어 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청소년 놀이문화와 외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전통문화 보존·계승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미국 청소년의 놀이 문화

미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상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 을 의미하는 14세에서 24세까지, 즉 어느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아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50년에 2천 4백 5십 1만 9천명을 기록하던 청소년 인구는 1995년에 3천 9백 7십만

*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청소년지역센터(KYCC) 특별사업부장

명이 되어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에는 그 수가 4천 6백 9십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1993).

미국 사회는 그 역사가 짧아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전통적인 문화가 부족하며 이민자의 나라로서 각자의 출신국가의 명절과 전통을 지키는 예가 많아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미국의 문화에 삽입된 경우가 많다. 일례로 중국계 사회에서는 구정에 큰 행사가 벌어지는데 이 행사는 이제 미국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문화 행사가 되었고, 아일랜드계 이민자 사회에서 지켜지던 성페트릭의 날과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기리는 독립전쟁 기념일 행사 또한 미국내의 알려진 문화행사로 변신을 했다. 물론 미국에도 11월의 추수감사절이나 12월 크리스마스, 5월 어머니날 등 전통 명절이라 부를 수 있는 날들이 있으나 이는 주로 가족중심의 행사(저녁식사 등)와 종교행사(기념예배) 등으로 국한될 뿐 특정한 전통놀이마당이 만들어 지지는 않는다. 늘어가는 핵가족 단위와 그 외의 비전통적인 가족구성(이혼가정, 재혼가정, 편부모 가정)이 늘어가면서 가족, 가족행사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져 앞으로의 미국식 전통 명절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미국의 전통문화 보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청소년 놀이문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미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는 전통문화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보다는 그 당시의 유행을 위주로 한 개인 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25세 이하의 미국 청소년들의 지출성향을 살펴보면 지출액의 9%가 외식에, 6.3%가 외복구입에, 그리고 5.0%가 오락비용에 할당되는데 이는 21.2%를 기록하는 교통비와 주거비 18.3%(18세 이상은 독립하는 성향이 뚜렷함을 감안)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내역에서 각각 1, 2, 3위를 달리고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1990).

1) 방과후 활동

미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알려면 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1990년에 있었던 미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한 방과 후 활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2회이상 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중 56.1%가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66.3%는 친구들과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 노는 곳에 가며 80.1%가 친구들과 전화를 한다고 대답했다(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1993). 여기서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 노는 곳이란 그 지역의 청소년회관/운동장 혹은 백화점, 각종 상점, 극장, 식당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쇼핑센터(shopping mall)를 주로 의미한다. 이외에도 평일에 방과후 5시간이상 TV를 시청하는 학생이 9.1%가 되는데(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0), 3시에 수업을 마친후 숙제와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한다면 취침시간까지 거의 TV만을 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시청시간 수치는 1980년 27.3%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공부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2) 체육활동

미국 청소년의 놀이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인데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연령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체육프로그램에 들어있다. 12-24세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농구로, 응답자의 28.1%가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 참조). 여러 운동 중에서 농구가 강세를 떨치는 이유로는 운동자체의 재미외에도 미국의 대학 및 프로농구의 열풍과 학교, 공원, 놀이터 어디에서나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 및 농구장 시설, 그리고 농구공 외에는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외적 조건들로 인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캠핑의 경우, 가족단위의 캠핑 여행이 많고 그 외에도 교회와 학교클럽, 기타 청소년단체들의 캠핑이 잦아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캠핑에 익숙해 있으며 각 지역 곳곳에 공공캠핑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캠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표 Ⅲ-5〉 12-24세의 미국인들이 즐기는 운동

농 구	28.1%
캠 핑	22.5%
배 구	21.4%
낙 시	19.3%
소프트볼	17.6%
미식축구	16.2%
야 구	15.9%
테 니 스	14.2%
축 구	11.0%
골 프	10.3%
스 키	8.5%
라 켓 볼	4.8%

자료 : National Sporting Goods Association, 1990

이제 미국에서는 “동네야구”와 “동네축구”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두 운동들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구의 경우 어렸을 때 부터 미국 전지역에 퍼져있는 리틀리그가 아동 야구인구의 거의 전부를 수용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각자의 학교팀을 통해서 야구를 하게 된다. 리틀리그의 경우 각 동네의 소속팀들이 모여 서로 지역별 대회를 치루고, 이 대 회가 계속 이어져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에도 출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리틀리그에 대한 부모의 열성 또한 대단한데, 현재 대개 부모들 중에서 팀의 코치가 선발되고 심판들도 부모 중에서 맡는 경우가 많 으며 후원회를 조직해 활발한 후원활동을 하는 등 부모의 긍정적인 열성 또 한 리틀리그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다른 운동에 비해 그 인기가 떨어지 는 편이지만 흥미롭게도 각급 학교에는 거의 모두 축구부가 있으며 야구의 리틀리그에 필적하는 미국 청소년 축구협회(AYSO : American Youth Soccer Organization)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94년 월드컵 과 95년 팬아메리카 게임에서 축구의 볼모지로 알려졌던 미국의 대표팀이 예 상외의 선전을 한 후 축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들 의 참여도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3) 스크린 문화

(1) 비디오 게임

미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크린(비디오게임, 영화) 문화이다. 어느 산업국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 청소년들의 비디오 게임 열풍은 미국 산업계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하다. 이전에는 그 지역의 오락장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여러 전자오락들이 비디오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집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한 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정용 비디오게임 중 40%가 6-17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출되고 있으며, 그 외 20%는 18-24세의 남녀가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mmons Market Research Bureau, 1993). 아울러 학교에서 친구들과끼리 오락 프로그램을 교환하거나 지역사회에 생긴 비디오게임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들 사이의 비디오 게임 열풍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비디오게임의 내용이 흥폭하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디오게임의 등록제정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비디오게임 업계와 청소년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와는 반대로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여러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례로 현재 시중에 나온 유명 비디오게임 중 가장 인기가 높은 Street Fighter와 Mortal Kombat 이라는 두 비디오게임은 그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로 인한 매출저하는 없었으며 최근에는 두 작품 모두가 영화화되어 그 중 Mortal Kombat는 현재 미국 영화시장에서 흥행률 1위라는 기록마저 세우고 있다.

인기있는 비디오게임이 영화화 되는 것과 아울러 인기있는 영화가 비디오 게임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영화 “터미네이터”와 “에일리언”은 이미 비디오게임으로 시판되지 오래되었고 올해 최고의 흥행수익(1억 8천만달러)을 올린 “배트맨”도 곧 비디오게임으로 나올 예정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인기 드라마였던 “모래시계”를 소재로 한 비디오게임도 현재 미국의 교포

업체에 의해 만들어져 곧 한국시장에 시판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늘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영화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영화관람을 하는 것이 가족 오락활동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이 영화관람을 하고 중학생 때부터는 부모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해 친구들과 영화를 보며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친구들과 독자적으로 영화를 본다. 청소년들이 1년에 영화관람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기록은 없으나 18-24세 사이의 미국남녀중 56%가 최소 3개월에 한번, 그리고 16.4%가 한달에 두 번이상 영화관람을 한다는 점과(Simmons Market Reserach Bureau, 1993), 성수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영화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의 영화관람을 통한 지출이 상당함을 알 수 있고 영화관람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 한 부분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참고로 대도시의 영화관람료는 할인시 \$4.50~5.00 이고, 보통은 \$7.00~7.50이며, 여기에 팝콘과 음료수까지 살 경우에는 1인당 \$10.00이 넘는다).

4) 댄스파티

미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주최 댄스파티를 갖는다. 댄스가 건전한 사교활동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댄스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집에서 하는 파티와 학교나 지역사회 주최로 하는 파티로 나누어진다. 개인 파티는 주로 생일이나 졸업을 기념하여 부모가 집에서나 다른 장소를 빌려서 마련하는 파티이고 학교나 지역사회 주최 파티는 청소년들의 탈선 가능성을 방지한 상태에서 건전한 댄스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 또한 포함하고 있다. 집에서 하는 파티일 경우 대개 밤 10시쯤 폐회가 되는데 파티 개최 전 이웃들에 양해를 구해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불평이나 신고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1년에 약 3~4회 정도의 댄스파티가 개최되는데 주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한다. 댄

스파티들은 각각 독특한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학기시작 기념, 학교 미식 축구 팀의 첫 홈경기(Home coming), 그리스·로마식 댄스파티, 졸업기념(Prom) 등이 있다. 각 댄스파티는 학교측과 학생회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기획되며 파티장에서는 교사 및 성인들이 나와 별다른 문제발생을 방지해 준다. 파티의 댄스곡 선곡, DJ, 밴드도 모두 학생들에 의해 진행된다. 음식으로는 간단한 간식이 제공되는데 음주와 흡연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성친구와 같이 오거나 친구들과 단체로 참가하며 시간은 보통 저녁 7시쯤 시작하여 10시에 마감한다. 학교주최 파티 외에도 지역사회가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놀이공간 마련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모임과 댄스파티들이 있는데, 보통 주말 저녁에 시정부의 주관으로 댄스파티, 견학, 영화관람 등의 모임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학교들의 댄스파티를 설명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졸업기념 댄스 혹은 프롬(Prom)이라 부르는 댄스파티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해서 학교주최로 열리는 이 파티는 평상시에 열리는 댄스파티에 비해 그 규모가 크고 가장 화려하며 졸업생들도 가장 기대하는 행사이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의미는 미국사회에서 대학진학에 관계없이 사회진출의 첫 장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 만큼 졸업기념 파티도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저녁식사에서 댄스로 연결되는 이 파티는 학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선으로 인근 호텔을 빌려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 곳의 무도장에서 댄스파티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의 의상도 정장이 요구되는데 대개 남자들은 턱시도를, 여자들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는다. 파티장으로 오는 교통편도 집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오거나 고급차를 대여하며,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리무진 서비스를 받을 때도 많다. 밤 11-12시에 파티가 끝나면 친구들끼리 인근 식당에 가서 밤참을 즐기고 각자 귀가하게 된다. 파티장에서는 성인 보호자들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파티 이후 각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마약복용, 성행위 등의 탈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한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고등학생 시절의 가장 화려한 전통인 프롬이 없어질 전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한인 사회의 축제 문화와 청소년들의 전통 문화 계승 활동 및 놀이문화(LA를 중심으로)

1) 미주내 한인사회

현재 미국내 한인 인구현황을 알아보는데 두 가지의 인구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1990년 미국 인구조사 결과이고, 또 하나는 2년에 한번씩 발행되는 대한민국 외무부 해외교포 현황이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미국 인구조사 결과가 한국의 외무부 기록보다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인구조사 당국 자체가 한인들 전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불법 체류 한인과 이민자가 아닌 유학생이나 상사, 지사원들이 인구조사에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무부 조사에 따르면 1993년 1월 1일 현재 해외 129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5백만 한인 중 1,533,577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중 약 29%인 438,935명이 LA가 있는 남가주 지역에 살고 있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11월 12). 미국내 한인인구를 약 80만명으로 잡고 있는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한인의 인구는 약 26만명으로 이들의 연령별로 분류해 볼 때 20대 미만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0).

2) 코리아타운의 날

미국 인구조사결과 약 14만명 이상의 한인이 살고 있는 LA 카운티(LA시와 인근 도시들을 합친 행정단위)에서는 코리아타운 교민회 주최로 매해 9월 약 10일간 미국 주류사회에 한인문화를 소개하고 한인사회의 단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코리아타운의 날” 행사가 22년째 열리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행사 명칭이 “한국의 날” 행사였으나 해를 거듭할 수록 로스앤젤레스시의 문화행사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1992년 4.29 폭동이후 사회화합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 이름을 “코리아타운의 날”로 바꿔 인근 지역의 타민족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나날이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는 미주 한인사회 축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행사의 내용으로는 (표Ⅲ-6 참조) 오락위주 경연대회에서 체육대회, 문화행사, 그리고 종교행사까지 그 행사가 매우 다양하며 주관단체 또한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의 각종 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실로 로스앤젤레스의 전체 한인사회의 단합을 과시하는 행사가 되고 있다. 특히 1993년도부터는 기존행사 외에도 남북한 미술품 교류전시회,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 예술단 공연 등의 특별행사도 마련하여 재외 한인사회의 특성을 심분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Ⅲ-6〉 코리아타운의 날 행사종류 및 주관단체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단 체
개막식	한국문화센터	코리아타운 교민회, 가주예술인협회
시, 도, 화 전시회	코리아타운 플라자 화랑	재미시인협회, 가주예술인협회
웅변대회	KTE 방송국 공개홀	남가주 한국학원
주니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T-TC 그랜드 극장	가주 신분, 주니어미스선발위원회
문학잔치 한마당	한국문화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수영선수권대회	반초 시에네가 수영장	재미대한수영연맹
미술실기대회	아드모어 공원	남가주 한인 미술가협회
장기, 바둑대회	나성한국기원	나성기우회
리틀왕자·공주 선발대회	한국문화센터	코리아타운 교민회
백일장	새한교회	미주기독교 한인협회
한인친선 낚시대회	LA 인근 해변	LA 낚시 동우회
한인 등산대회	로버즈 캠프	재미대한산악연맹
볼링대회	샤트볼링장	LA 한인볼링협회
망향 성묘제	센페드로 우정의 종각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유화전시회	KTE 방송국 공개홀	코리아타운 교민회
한국우수특산품직판전	아드모어 공원	고려무역, 코리아타운 교민회
서예대회	아드모어 공원 체육관	미주서예가협회
동양화대회	아드모어 공원 체육관	한미예술원
장터	아드모어 공원	코리아타운 교민회, 미주한국일보
성가경연대회	아드모어 공원	라디오코리아
한미패션쇼	보나벤티호텔	남가주패션대학, 한미패션위원회
한인노인견치대회	올림피병원	이태주치과
웃놀이대회	아드모어공원	한국노인회
사교무도경연대회	카니댄싱클럽	장스스튜디오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단 체
장수무대	아드모어공원	미주조선
합기도시범	아드모어공원	세계합기도연맹
젊음의 축제	아드모어공원	남가주한인총대학생회
청소년연극	아드모어공원	청소년극단 “턴오라마”
통일기원 새벽기도회	베네토 한인침례교회	남가주기독교협의회, 코리아타운 선교 위원회
우량아 선발대회	현대종합의료원	현대종합의료원, 고려보건진료소
마술사쇼	피오키코시립도서관	키오키코시립도서관
한국무용발표회	아드모어공원	코리아소사이어티
가요 경연대회	아드모어공원	주간연예
코리아퍼레이드	올림픽가	한국일보
레이저영상가요경연대회	아드모어공원	한미방송
태권도시범	아드모어공원	도산체육관
민속씨름대회	아드모어공원	재미대한 LA 체육회
제기차기대회	아드모어공원	재미대한 LA 체육회
팔씨름대회	아드모어공원	재미대한 LA 체육회
주부가요열창	아드모어공원	KTAN 방송국
시상 및 폐회식	아드모어공원	코리아타운 교민회

자료제공 : 미주 한국일보 사업국

코리아타운의 날 행사 중에는 코리아퍼레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데 보통 코리아타운의 날 행사가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약 2-3시간정도 LA시의 협조를 받아 코리아타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도로인 올림픽가의 교통을 폐쇄하고 이 도로를 따라 꽃차행진, 농악행진, 미국마칭밴드 및 치어리더 행진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특히 차량행진의 선두인 그랜드 마샬로는 최근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시장, 연방하원의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 카운티 위원회 의장 등 로스앤젤레스시의 대표적 지도자들이 연속으로 등장해 이 행사의 규모와 수준이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참가인원 2,000명에 관객평균 6,000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 행사는 한인사회의 언론기관뿐 아니라 미국의 주류사회 언론에서도 취재를 해 가며 코리아타운 인근의 타민족들도 가족끼리 구경을 나와 한국의 문화를 보고 또 서로 같이 어울려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등 전통문화 축제에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성공적인 행사로 꼽히고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와 자매결연을 맺

고 있는 부산시, 그리고 코리아타운이 속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제10선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등 한국의 지역자치단체들에서도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고 있어 본국과의 연대를 지속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기업체들의 꽃차출품 후원금(표 III-7 참조) 등을 이용, 예산수립 및 활용면에서도(표 III-8 참조) 매우 효율적인 행사를 치뤄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II-7〉 꽃차 출품사

뉴욕생명보험, 경주시, 한국일보, 롯데제과, 해태제과, 금융협의회, 가수의환은행, 선정, 한국통신, 시중은행, 부산시, 밀터맥주회사, 제일제당, 한국코닥, 동서식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씨그렘사

자료 제공 : 미주 한국일보 사업국(1993년도 20회 퍼레이드 기준)

〈표 III-8〉 1994년도 제 21회 코리언 퍼레이드 수입·지출내역
 〈수 입〉 〈지 출〉

종 목	금액 (\$)	종 목	금액 (\$)	비 고
꽃차 후원금		퍼레이드 소품	14,000	천막, 의자, 인쇄 등
뉴욕생명보험	7,000	꽃차 대여	22,550	1,550×7 ; 1,300×9
금융협의회	7,000	꽃차 디자인	29,500	
가주외환은행	7,000	농악대 임금	7,000	100명; 3.75/시간
보르네오	7,000	댄싱/마칭밴드	6,000	
경주시	7,000	깃발제작	6,000	
부산시	7,000	보험	3,600	
아시아나항공	4,500	농악교습비	4,000	교사 2명+보조 1명
대한항공	4,500	점심 및 음료	1,700	농악팀, 태권도, 직원
시그람사	3,500	한국 후원단체	6,000	참판단 제반소요비용
버드와이지	3,500	장비대여	800	음향기기 등
한국업체 (9)	63,000	농악장비 구입	4,000	
깃발 후원	9,900	시청 등록세	300	
		농악대 교통편	550	버스대여
		기타 경비	3,000	
		행사 사회자	500	
		민속놀이 제작	500	깃발 및 길쌈놀이
수입 합계	130,990	지출 합계	110,000	
총 수입	130,990			
총 지출	110,000			
잔 액	20,990			

자료 제공 : 미주 한국일보 사업국

〈표 III-6〉에 수록된 행사들 중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는 코리언퍼레이드 중에 선보이는 민속행렬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리언 퍼레이드 민속행렬

코리아타운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도로인 올림픽가의 교통을 막고 진행되는 코리안퍼레이드의 일부로서 약 100여 명의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약 1주간의 연습 후에 소개된다. 농악지도는 한국의 김동석 한국무용 예술단장이 22년전에 첫번째 퍼레이드 이래 계속해서 맡고 있어 매해 9월이 되면 이를 위해 한국에서 직접 와서 농악지도를 하고 있다. 참가 청소년들에게는 연습참가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지불해 주고 있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지만, 이들이 전통농악과 고전무용을 배워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나가서 자신의 뿌리의식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결과를 낳고 있어 한인사회의 여러 청소년대상 행사 중 한국인의 문화교육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프로그램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웅변대회

남가주 한국학원 주최로 열리는 이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력을 보여주는 대회로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의 16개 지역 주말 한글학교에 재학중인 3,000여명의 학생들 중에서 예선을 거쳐 약 10여명이 본선에 출전한다.

(3) 주니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연령 15-17세의 한인소녀들의 미와 재능을 겨루는 대회로 한복, 평상복, 이브닝드레스 경연으로 미를 심사하고 장기자랑, 인터뷰, 의견발표 등으로 재능을 심사한다. 미국의 대학입학시 이러한 행사에서의 수상경력은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행사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4) 수영대회

한인 주니어 선수권대회로 알려진 이 대회는 한인청소년들의 수영대회로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최우수 선수들에게는 재미 대한 수영 연맹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외에도 미술실기대회, 글짓기대회 등의 경연대회가 있으며 한인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극단 “틴오라마”의 연극발표회, 남가주 총대학생회가 주관하는 젊음의 밤 등이 코리아타운의 날 행사들 중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로 꼽히고 있지만 40여개가 넘는 행사들로 그 주관단체들을 살펴보면 코리아타운의 날은 아직 한인 이민 1세, 즉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날에서 코리아타운의 날로 명칭이 바뀌고 한인들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개방되는 로스앤젤레스시의 대표적 문화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중 문화권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해 나가는 한인 청소년들과 한인청년들, 즉 1.5세 한인들이 이 행사를 점차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그리스정부론 관측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대학생 중심 전통문화 계승 작업

미국 각 주, 특히 많은 한인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와 계승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기존 한인사회가 미처 하지 못하는 문화교육 부분을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LA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우리문화 공동체는 약 40여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회원을 보유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국악기 연주 및 춤사위 등을 포함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다. 각종 한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대보름때 한인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들은 한국에서 온지 오래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 즉 2세 청소년들의 참여 또한 늘어나고 있어 한인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LA시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UC Berkeley)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한인문화 단체와 보

스톤지역 아이비리그 대학의 한인학생들을 중심으로한 풍물패들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그 지역의 한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국 전통 문화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대학교 행사와 한인사회 행사들에 참여하여 농악 및 사물놀이들을 소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스톤 지역 풍물패는 보스톤지역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필요악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은 적도 있어 미주 한인사회의 전통문화 계승 작업을 위한 학생단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지원 가능성을 더 높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 계승 활동 외에도 한인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는 미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약간은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가장 독특한 것으로는 교회 중심의 놀이문화와 노래방 중심의 놀이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 교회중심 놀이문화

미국내 한인사회에서의 교회의 존재는 종교단체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일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1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친목과 회합의 장소로서의 의미도 큰데, 한국내 기독교 신자가 전 국민에 약 25%정도가 됨에 비해 미국내 한인 중 교회를 나간다고 답하는 사람이 약 80%나 된다는 것과 1979년 당시 LA시 및 인근지역의 한인교회의 수가 약 180여개에 불과했던 한국인 교회의 수가 1995년도에는 약 600여개로 급증했음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중앙 한인업소록, 1995).

교회에 참석하는 한인 부모와 함께 청소년들도 교회에 같이 가게 되고, 이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청년부 혹은 학생부에서는 교리 전과 외에도 여흥과 문화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일요일 예배시간외에 토요일 오후 저녁, 혹은 일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단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많은 단체 활동으로는 체육활동인데 역시 농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회 대항으로 혹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항의 정기 운동경기가 벌어져 많은 청소년

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체 영화관람, 식사, 볼링, 놀이시설 이용 등을 교회에서 주선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과끼리 가는 경우가 많으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2박 3일에서 3박 4일의 수양회 혹은 캠핑을 가는 것이 거의 정례화되어 있다. 부모들도 교회를 통한 여가선용을 반기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교회주선 행사에서 교회학교의 교사나 성인지도자가 같이 있게 되므로 그만큼 안전하고 자녀들의 탈선 위험성이 줄어든다는데 있다.

5) 노래방 문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곳 미국 한인사회 어느 곳을 가도 노래방 하나 혹은 가라오케 시설이 되어 있는 식당이 없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와함께 한인 청소년 및 성인들 사용이 급증했으며 현재 LA 지역에는 약 30-40군데의 한인 대상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중앙 한인엽소록, 1995) 가라오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양식 집이나 식당까지 친다면 그 수는 거의 70-80개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노래방의 사용료는 시간에 약 15-20달러 정도로 여러 명이 같이 갔을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방과 후의 오후시간과 저녁시간에 노래방을 가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와 있음을 볼 수 있고, 밤시간이 되면서 고객은 성인으로 바뀌어 나간다. 가족이 모두 온 경우도 많이 있어 이제 한인 사회내에서 노래방은 한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놀이공간으로서 어느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인 청소년의 노래방 사용을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로 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2세 한인들도 한인 노래방 사용을 많이 한다는 데 있다. 영어로 대화를 하기 전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노래방에서는 버젓이 친구들과 어울려 최신 한국가요를 같이 부르고(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노래방 시간이 끝나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영어로 이야기 하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노래방을 찾은 몇몇 영어사용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가 같은 몰라도 리듬과 느낌이 자신들에

게 맞기 때문에 또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로 자신들의 노래방 이용 이유를 말한다. 부모와 영어로 대화를 하기 전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부모가 영어를 못할 경우에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한글과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는 이 청소년들에게 어쩌면 가요 속의 그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의식을 인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가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교육이라는 약간은 비전통적인 뿌리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노래방이 놀이공간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수업시간 중 학교를 빠져나온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를 악용한 몇몇 노래방 영업주들은 아예 수업시간동안 대폭적인 사용료 할인을 해 불법으로 학교를 빠져나오거나 결석을 한 청소년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법적으로 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업소관계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주류판매 허가를 받아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업소들이 생겨나 노래방의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이와함께 청소년들의 탈선 소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교포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노래방은 한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한인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한인인지 아니면 미국인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한다. 이 혼돈을 줄이고 건실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문화적 정체성이 필요한데 한국인과 미국인이라는 두개의 선택사항 중에서만 택해야 하는 정체성이 아닌 제3의 정체성 즉 Korean-American이라는 자신의 문화적 특이성과 정체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문화의 자연스러운 접촉외에도 모국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지식 및 인식이 필요한데, 특히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자신의 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작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르칠 활동이 극히 부족한 상태인데, LA의 경우 「1995-96년도 한인업소

록」에 기재된 한인단체 약 260여개 중 6개 단체만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모임들을 통한 문화활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과 뿌리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여러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 후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이 부족하여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위의 행사 이후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주지하고 단발성 문화소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전통문화 계승 작업을 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되어 온 한국문화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결 론

미국의 청소년들은 전통문화에 기초한 놀이문화 보다는 개인중심의 놀이문화를 즐기며 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주내의 한인 청소년들도 미국 청소년들과 비슷한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전통문화와 교회중심의 놀이문화 등의 문화적으로 독특한 문화도 같이 접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한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뿌리의식 고취가 가능할 수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전면개방이라는 대제를 당면한 한국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주체성을 확립시켜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방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면 미국의 한인사회는 미국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뿌리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해 주어 이중문화에서 오는 혼돈을 방지하고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라는 독특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사회에서 한인사회의 지위를 높이고 아울러 생산적인 시민들이 되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 하겠다. 이 두 다른 과제들의 해결책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 해결책의 실시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한인사회 모두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를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와 정부차원

의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National Sporting Goods Association(1991), Sports Participation in 1988-1991, Washington D.C. : National Sporting Goods Association.
-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1993), Youth Indicator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Simmons Market Research Bureau(1993), Simmons Study of Media and Market, New York : Simmons Market Research Bureau.
- U.S. Bureau of the Census(1990), U.S Census of Population,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1990), First Followup Survey.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Labor(1990), Consumer Expenditure Survey : Integrated Survey, 1984, 87, 89 & 90,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 1995-96 중앙한인업소록(1995), Los Angeles : The Korean Central Daily.

전통 문화 활동을 통한 민족 문화 교육

김 영 림*

1. 머리글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특정된 환경에서 한세기 반을 살아오는 과정에 자체의 민족적 특성을 띤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이리하여 오늘날 조선족교육은 중국 경내 55개 소수민족의 교육에서 전열에 섰다고 인정되어 왔고 세계에 산재한 500만 동포의 교육에서 「민족특성을 확보한 전범」으로 인정받고 있다.¹⁾ 이와 같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선족교육에서 자주적으로 본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여 오면서 자체의 민족 특성을 살피은 것과 같라 놓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족 중소학교교육에서 우리 말과 글을 교수용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문자, 문학예술,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교과목 내용으로 하여 가르치고 있다. 교과목 내용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가 일정한 비례를 차지하며 또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전수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실내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익히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은 계속하여 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천적 면에서 보면 교육현장에서 전통문화활동의 활성화, 계열화, 자주화가 부족하고 연구면에서 보면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소개 성격인 글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아직 이론적인 조명(照明)이 미약한 바 민족문화교육의 시각에서의 폭넓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되며 활발한 연구분위기가 기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 조선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및 번영에서 현실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중국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조리 연구원

1)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 교육” (강영덕, 「중국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전망」 논문집, 1995년 6월 연변대학출판사)

현대적인 민족교육, 민족적인 현대교육을 지향하는 조선족교육에 대해 말하면 다세기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필자는 중국 연변조선족 중소학생들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활동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다루기로 한다. 본문의 흐름은 먼저 조선족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의 의의를 밝힌 후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금후의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2. 본 글

1) 전통문화활동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의 의의

(1) 민족학생들의 민족심리 강화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문화와 교육도 다원일체(多元一體)의 구성을 가진다. 즉 일체성과 함께 다원적 특징도 가진다. 중국에 살고 있는 56개 민족은 모두 자체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족교육에서 본민족문화가 배경으로 될 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문화도 역시 배경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원문화 배경에서 민족학생들의 민족심리를 어떻게 강화하여 주겠는가 하는 것은 민족교육 앞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다민족국가에서 매개 민족은 민족 후대들에게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여 민족심리를 형성, 안정시키고 강화하여 주려한다. 이때에는 민족문화교육이자 민족심리교육으로 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속에서 배달민족의 민족심리가 침적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은 민족문화교육으로 되면서도 민족심리교육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 살며 배우며 성장하는 조선족 중소학생들의 경우 전통문화활동은 민족의식, 민족성격, 민족적 자부감과 긍지감, 민족적 정감과 심미감 등과 같은 민족심리를 키워줄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민족전통문화의 전승을 담보하는 데서의 의의

중국에 사는 조선족은 조선반도로부터 넘어온 배달민족의 겨레돌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문화전통을 가지고 있고 전통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장구한 역사적 행정에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가꾸어온 전통문화는 보귀한 문화유산으로서 민족 후대들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될 문화적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을 민족문화 전승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의의가 자못 크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민족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는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둘째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셋째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에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전파하는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3) 민족학생들의 심신 발전 조화

중국 교육계 내지 조선족 교육계에서는 80년대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응시교육(應試敎育)”으로부터 “소질교육(素質敎育)”에로의 전변을 강조하면서 열기띤 논의와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타민족들로부터 “높은 교육열을 가진 민족”이라는 치하받는 조선족은 확실히 드높은 교육열로 세인이 주목하는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왔으나 그 교육열의 밑바탕에서 끈질기게 작용한 지위지향성적인 교육가치관념으로 인해 “대학입시”, “시험성적”에 얽매인 “입시문화”를 초래하였다. 이 “입시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심신발전이 조화롭게 되지 못하는 폐단이 초래되었고, 또 이로부터 학생들의 심신이 조화롭게 발달되지 못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상대하여 전통문화활동을 활발히 하여 나간다면 학생들의 심신발전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며 “초조감”, “불안감” 등과 같은 심리질병도 치유할 수 있으며 덕, 지, 체 등의 면에서 전면 발전한 인재를 키우는데 유리하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민족문화교육의 개혁 추진

80년대 이래 조선족교육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혁개발의 열조 속에서 민족적 삶의 현장과 문화적 풍토에 힘입어 개혁의 템포를 다그쳐 왔다. 특히 민족문화의 창달에 좋은 문화적 분위기가 점차 이루어지자 중소학교에서의 민족문화교육은 더욱 활발한 양상을 띠었고 따라서 개혁의 시도도 이루어졌다. 전에 학과과정에서만 치우치던 개혁이 활동영역에 과급되어 과외 활동이 활동과정(活動課程)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과정개혁도 추진되었다. 그 기간 전통문화활동이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민족문화교육도 보다 개혁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선족 중소학교 민족문화교육의 개혁에서 전통문화활동 영역이 점차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개혁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1세기를 지향하는 조선족교육의 시각에서 보거나 환태평양(環太平洋) 지역의 경제문화권의 형성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조선족중소학교에서의 전통문화활동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문화권 내지 동방문화권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문화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그 문화를 고양하는 활동으로서의 전통문화활동은 우리 민족문화를 세계만방에 널리 전파하는 데서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지향적인 조선족교육으로 부상하는 데서 민족문화교육은 중요한 부분으로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개혁영역으로 되어야 한다. 전통문화활동 영역의 개혁을 밀고 나가 전반 민족문화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과업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 보다 넓은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통문화활동을 연구하게 되면 그 영향이 다음 세기에 미치게 되고 또 세계적 범위로 확장됨을 감안할 수 있는데 이로써 그 의의가 자못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

(1)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분류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는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분류기준을 달리하면 여러가지로 분류해 낼 수 있다. 필자는 전통문화에 대해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문화재적 전승문화 등 3가지로 분류하는 분류법²⁾에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 전통문화활동도 이와 같은 3가지 문화와 연결된 활동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조선족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을 주로 문화재적 전승문화와 연계시켜 전통예술활동, 전통체육활동, 민속놀이활동, 민속박물관 참관활동 등 4가지 활동영역으로 나누었다.

(2) 다각적인 투시를 통한 이해

가. 역사적 측면에서

조선족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첫 번째 단계(1949년 10월~1966년 5월) : 이 시기는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에 대해 중시를 돌리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중소학교의 예술교육은 건국초기부터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민족 학교들에 비하여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짙은 민족적 풍경으로 이채를 띠었다. 예술교육을 중시한 여러 학교들에서는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교내 문예경연대회를 열었고 예술과의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1956년도에 연길시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학생경기 및 문예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조선족 학교들에서 공연한 종목을 보면 조선민족의 노래와 춤의 고유한 형식을 살려 출연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사회와 교육계 해당 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³⁾

1950년대 중기에 조선족 중소학교들에서는 대중무용 “홀라리”를 전면적으로 보급하였으며 1955년에 연길시공원소학교(조선족 학교)의 500명 학생들이 대형집단 무용 “소고춤”을 출연하였고 196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10회 기념대회에서 연길시의 2천명 소학생들이 대형집단무용을 출연하였다.⁴⁾

2)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3년 12월)

3) 「중국조선족 교육사」(박규찬 주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년)

4) 「중국조선민족예술교육사」(김덕균 주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년)

조선족을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이라고 부르고 연변을 “노래와 춤의 고향”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조선족 학교교육에서 민족예술의 보급사업을 중요시한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로부터 조선족 중소학교에서는 민족체육활동을 보편적으로 진행하였다. 체육교수에서 축구, 배구,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조선족이 즐기는 종목을 적당히 보충해 넣었고 과외로 그네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활동을 조직하였다. 민속놀이인 연피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놀이로 많이 놀아졌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는 전통문화활동을 민족문화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② 두 번째 단계(1966년 5월~1976년 10월) : 이 시기는 “문화대혁명” 10년 기간을 말하는데 민족교육에서 전통문화활동이 여지없이 압제당한 수난기이다. 당시에 사회에서 성행한 문화독재주의로 하여 사회적으로 배달민족의 전통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전통문화활동 역시 말할 나위없이 “금지구역”으로 되었으며 50년대, 60년대 초반에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던 전통문화활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③ 세 번째 단계(1976년 10월~현재) : 이 시기는 전통문화활동이 복원되고 전망위적으로 활발해진 때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부터 조선족 중소학교에서의 전통문화활동이 점차적으로 복원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기를 띠게 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토대 위에서 더욱 풍부하고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민족문화정책에 힘입고 민족문화의 풍토에서 우리 민족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과 도약을 위해 민족문화교육에 심혈을 쏟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떠올렸다.

그 중에서 80년대 후반기 이후의 주요한 성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예술축제 : 전국조선족 소년아동 예술축제는 지금까지 도합 3회 진행되었다. 제 1회는 1988년 8월에 길림성 연길시에서 펼쳐졌는데 북경, 천진, 내몽골, 요령, 흑룡강, 길림성 등, 시, 자치구와 심양 철도국의 도합 15개 대표팀이 참가하여 무용, 성악, 기악 등 130개의 프로그램을 공연하였다. 제 2회는 1991년 8월에 흑룡강성 할빈에서 진행되었는데 13개 대표팀이 참가하여

100개 프로를 공연하였고, 제 3회는 1994년 8월에 요령성 심양시에서 진행되었는데 11개 대표단이 참가하여 106개의 프로를 공연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예술축제에서 민족특색과 지방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많이 공연되었고, 전통적 예술을 시대정신과 동심에 맞게 개작하거나 재창조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 적지 않았다.⁵⁾

② 전통체육활동 : 민족체육활동에서 큰 성과를 따낸 학교로서는 용정시 조양천 제 1 중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1986년부터 민족체육운동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활동을 조직하였으며, 1991년에는 중국에서 유일한 그네, 널뛰기 민족체육훈련관(건평이 353.82m², 높이 13m)을 세웠다. 1991년 11월, 제 4차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경기대회에서 이 학교의 그네뛰기선수 임미선학생이 높이뛰기에서 9.20m, 방울차기에서 다섯 번 굴러 방울을 87차 올림으로써 일등을 하였고, 혼자 금메달 두 개(집단 1등, 개인 1등)을 따내었다. 널뛰기 선수 한금선, 박문화, 최해금, 김선자 등 네 학생이 두 개조로 된 널뛰기 연기에서 역시 1등을 쟁취하여 각기 금메달 한 개씩 모두 네 개의 금메달을 따내었다. 이번 대회에서 이 학교는 “전국 민족체육 선진집단”이라는 영예칭호를 수여 받았다.⁶⁾

③ 민속박물관 참관활동 : 1990년도부터 “연변박물관”에 “연변조선족민속박물관”이 새로 개관되었다. 이 민속박물관에는 4천여점의 소장품이 있는데 조선족의 민속을 생생히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이 민속박물관은 생산노동풍습, 생활풍습, 인생예의풍습, 문화체육오락풍속 등의 부분으로 꾸며졌다. 이 민속박물관이 세워진 이래 조선족 중소학교에서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는 좋은 활동장소로 되었고 아울러 민속박물관 참관활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민속박물관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5년 8월까지 조선족 중소학생들이 해마다 평균 5천명 좌우씩 이 민속박물관을 참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민속박물관 참관활동은 연변의 중소학교 민족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일환으로 되어 성과를 거두었다.

5) 「요령신문」 1994년 8월 11일

6) 「영광의 60성상」(연변인민출판사, 1995년 4월)

④ 민속놀이활동 : 학교나 학급에서 집단적으로 조직한 민속놀이를 실례로 든다. 용정시 개산분진소학교에서는 1992년 4월에 학교적으로 연떡우기경기를 조직하였고 연길시 태평소학교 한 학급에서는 1992년에 과외활동으로 민속놀이 “늦다리놀이”를 조직하였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민속놀이를 조직한 것은 새로운 시기의 새 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전통문화활동이 보다 폭넓게 전개되었고 또 성과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조직적 측면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에 대해 조직하는 것을 정부, 사회적 차원과 학교나 학급의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대형적인 예술축제나 기념대회, 민속절과 같은 것은 대개 다 정부나 사회의 차원에서 조직된다. 실례로 92년도에 연길시에서 있었던 “6.1 국제아동절 기념대회”는 연길시 교육위원회와 공청단연길시위(共靑團延吉市委)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중고연변주위와 주정부, 중공연길시 시외와 시정부의 지도자들이 친히 참석하였다.

학교 내의 문예경연대회나 민속박물관 참관활동, 민속놀이활동과 같은 것은 흔히 학교나 학급의 차원에서 조직되고 이루어진다.

다. 내용 영역별 측면에서

앞에서 분류한 4가지 부류에서 전통문화활동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전통예술활동을 보면 “도라지”,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부르거나 “칼춤”, “부채춤”, “물동이춤”, “농악무”와 같은 민속무, 궁정무가 있으며 근간에는 조선글 서예가 각광받고 있다. 전통체육활동에는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전통적 체육 종목이 내용으로 된다. 민속놀이를 보면 윷놀이, 연떡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여러가지 놀이 내용으로 되고 있다. 민속박물관 참관활동을 보면 조선족민속이나 민속유물이 활동의 내용과 요해 대상으로 된다.

상기한 4가지 부류의 전통문화활동에서 전통예술활동과 민속박물관 참관활동

동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라. 형식적 측면에서

전통문화활동을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 그것들을 개괄하면 민속축제형식, 기념대회형식, 경연·경기 형식, 과외활동형식, 소선대중대활동형식, 참관방문활동형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 배경적 측면에서

① 다원문화배경(多元文化背景)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은 단일한 민족국가의 사회문화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활동과는 달리 다민족국가의 다원문화배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본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 타민족에게 본민족의 문화를 전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다원문화 배경에서 전통문화활동은 복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민속축제나 기념행사 때의 대형적인 전통문화활동은 본민족은 물론 타민족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강한 문화적 충격을 주게 된다. 1992년도에 연길시 인민경기장에서 펼쳐졌던 “6.1 국제아동절 기념대회”에서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여 꾸민 대형 집단무용 “나래치라, 연변이여”를 출연하였는데 여러 민족인민들로 구성된 6만명 관중들에게 강한 민족문화의 충격을 주었었다. 이와 같이 다원문화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활동을 다민족국가의 시각에서 보아야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지적하고 싶다.

② 과경문화배경(跨境文化背景)

중국의 조선족은 19세기 60년대부터 조선에서 중국으로 대량적으로 이주하여 왔고, 오늘에 와서는 중국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반도의 우리 겨레들과 혈연적, 문화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중국조선족 문화는 과경문화의 특점을 가진다. 필자는 중국조선족 문화를 지정학적인 각도에서 “부채형의 문화(扇形文化)”로 이름한 바 있다. 이는 조선반도의 문화를 부채의 손잡이에 비

유하고 중국조선족문화를 부채살에 비유하여 이름한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족문화의 과경문화 특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시각을 잡은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조선족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이 과경문화배경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로부터 이런 활동이 민족적 특점과 함께 국제적 특점을 띠게 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간단히 실례를 돌아보자. 근년에 전통문화활동으로서 “사물놀이”가 놀아지고 있는데 개방이후에 한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며 무용에서 “돈돌라리”라는 민속무용이 무대에 오르는데 조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관광객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 상황이 한국이나 조선에 전해져 나가기도 한다. 이로부터 과경문화배경에서의 전통문화활동은 자체의 특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지역문화배경

조선족이 집거한 연변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전통문화활동과 조선족이 산재, 잡거한 지역에서의 활동은 서로 다른 지역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다. 집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학생들의 경우 기타 산재(散居)·잡거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에 비해 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게 된다. 민족자치지방인 연변의 사회정치환경, 사회문화환경 이외에도 조선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연 지리적 우세조건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002년도에 연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92 중국 연변조선족 민속절”을 개최하였는데 이와 같은 민속축제로 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전통문화 함양의 문화적 풍토와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또한 조선족 중소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은 지역문화배경의 제약과 영향을 받는다. 물론 활동 주최측의 노력과 능력 차이도 있는 것이지만 민족자치지방에서의 활동이 보다 쉽게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활동 내용이나 형식에서도 지역문화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민속박물관 참관활동과 같은 것들이다. 민속박물관의 위치에 따라 가까운 지역학교들에서의 활동이 쉽게 조직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3) 사례 진술을 통한 이해

조선족 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해 세 개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 “6.1 국제아동절 기념행사”

“6.1 국제아동절(국제민주여성연합회에서 1949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고 해마다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원에서는 1949년 12월에 6월 1일을 아동절로 규정했음)”은 사회교육적 의미를 가진 명절이면서도 중국조선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육풍속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조선족들에게 있어서 “6.1 국제아동절”은 가장 성대한 명절로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연변에서는 2~5년에 한 차례씩 “6.1절 기념대회”를 각 현, 시별로 가지고 갖가지 기념활동을 벌인다. 1992년 6월 1일에 연길시 인민경기장에서 6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6.1 국제아동절을 경축하는 여러민족 소년아동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연변주와 연길시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대회 주석단에 올랐다.

오전 8시 정각 공천단연길시위 서기가 대회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9시경에 연길시 2만 5천여명 소년대원(중국소년선봉대대원)들의 대검열이 시작되었다.

신뜻한 조선민족 옷차림을 한 의장대를 앞세우고 소고대와 나팔대가 울리는 씩씩한 출기곡과 행진곡에 발맞추며 연신소학교 검열대가 보무당당히 걸어왔다. 이어 중앙 소학교의 경쾌한 농악무, 건공 소학교의 부채춤이 대회 주석단 앞에서 추어졌다.

검열은 신흥소학교의 대형집단 예술체조 “2000년으로 내달리네”, 북산소학교(한족소학교)의 “우리는 조국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네”가 표현되면서 더욱 열기를 띠었다. 특히 중앙소학교의 대형집단무용 “나래치라, 연변이여”는 경축행사를 고조어로 끌어올렸다.⁷⁾

7) “연변일보”(1992년 6월 2일)

“나래치라, 연변이여”는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 자체로 창작하였는데 2천 7백명의 학생과 교원, 3백명의 학부모가 참가하여 출연하였다. 물동이춤에 100명, 학춤에 100명, 상모춤에 100명, 새장구치기에 400명, 북치기에 400명, 황소탈춤에 200명, 소물이군에 100명, 진달래춤에 800명 등 2천7백명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출연시에 출연자들은 모두 민족복장을 입었는데 전통 문화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이 대형집단 무용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문화생활에서 소재를 취하고 지방 특색을 가미하여 창작하였는데 춤에서 고유한 민족적 형식을 살피냈고 민족적 정서를 담은 울동감을 안겨주었다.

“나래치라, 연변이여”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 1장은 꽃피는 연변, 제 2장은 내고향 연변, 제 3장은 춤추는 연변, 제 4장은 나래치는 연변이다. 우리 민족의 그윽한 향토애를 표현하면서도 21세기의 찬연한 미래를 노래한 이 대형집단무용은 고향땅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진지한 사랑과 그것을 확실히 걸고어 나가는 겨레들의 근면을 노래함과 더불어 개방의 훈향을 타고 세계어로 매진하려는 시대적 빠르스를 실감있게 보여 주었다. 이 대형집단무용은 몇 만명 관중들에게 감동의 선물을 몰아왔고 장내 특히 해외관중들은 감동에 젖어 이들의 예술적 표현장면을 연거퍼 카메라에 잡아 넣기도 하였다.

나. 민속축제

1992년 8월 3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40회를 맞으며 '92 중국연변조선족 민속절이 연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창립 40회를 계기로 중국당에서 처음으로 벌린 연변조선족 민속절은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빛발 아래 자기 민족의 언어, 문자, 민속을 고스란히 지켜온 우리 민족인민들이 이 땅에 심어오고 키워온 민속을 한마당 널리 자랑하는 민속놀이 대잔치로 되었다.

조선민족 의상을 입은 엄증국 부주장이 개막식을 사회하고 전국정협 홍학지부주석이 민속절 개막을 선포하였다.

한복 단장을 외쳤하게 한 전철수 주장은 “중국연변 조선족 민속절은 민족은 전통과 현대문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밝히고 나서

명절의 축하를 드렸다.

이 민속절에서 조선족 학생들이 출연한 세개 프로를 소개하기로 하자.

연변 제 1 사범학교의 학생들(중학교 단계의 학생들과 같은 연령단계의 학생들이) “대형 조선 민족 타악기 협주”를 출연하였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타악기인 장고, 북, 쟁과리, 징, 큰북으로 93명(9월 3일 자치주 창립기념일을 상징) 남녀 학생들이 타악기 합주를 하였는데 재치있는 표현, 경쾌하고 열렬하며 장엄한 연주로 민족의 기쁨과 명절의 기분을 돋구어주었다. 시물놀이 연주 형식, 특점, 풍격을 이용하고 농악장단을 기초로 한 이 타악기 합주는 중국땅에서의 조선족 음악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되는 대형 조선민족 타악기 합주 표연으로 되었다.

화룡현 어린이 대표단에서는 민속무용 “절놀이”를 표연(表演)하였다. 이 무용은 햇빛 눈부신 백사장에서, 하늘하늘 춤추는 수양버들 밑에서 고운옷 입고 연지곤지 곱게 바른 조선족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대로 집집의 노인들을 찾아 절을 올리는 달콤한 꿈을 꾸면서 노는 신랑각시 놀음을 재미있는 소꿉놀이로 표현한 무용이다.

도문시철로 소학교 대표단에서는 “명절의 기쁨”을 출연하였는데 이 무용은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하고 뛰놀기 좋아하는 특점을 틀어쥐고 조선민족무용 “상모춤”, “접시춤”의 예술형식을 이용하여 명절의 기쁨을 표현하였다.⁸⁾

이 밖에도 1995년 7월 16일에 연변체육관에서 “‘95 중국연변조선족 민속 관광절”이 개막되었는데 이 민속절에서 연길시 중앙소학교의 80명 어린이들이 민속무용 “물둥이춤”을 추어 장내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일으켰다.⁹⁾

이와 같이 민속절활동에서 조선족 학생들이 출연한 프로들은 장내에 감동의 선풍을 일으켜 관중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향기를 맛보게 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열과 겨레의 높은 맥박을 실감케 하였다.

다. 민속놀이 과외활동

1992년 11월에 연길시 태평소학교의 한 학급에서 과외활동으로 민속

8) “연변일보”(1992년 9월 1일)

9) 「연변일보」(1995년 7월 8일)

놀이를 조직하였는데 사례로 제공한다.

① 민속놀이 명칭 : 뚝다리 놀이

② 조직자 : 김월산(학급 담임교원)

③ 활동목적 : 첫째, 민속놀이에 대해 초보적으로 이해시킴. 둘째, 언어표달 능력을 제고. 셋째, 근로하고 슬기로운 조선민족 부녀들의 훌륭한 품성을 학습, 민족자부심 키움.

④ 활동장소 : 교실

⑤ 준비물 : 환등기, 녹화기, 녹음기

⑥ 활동내용 : 뚝다리놀이

⑦ 활동흐름 :

— 교원의 도안과 이번 시간 활동 목적 교대

— 민속놀이에 대한 해석(교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민속놀이 예들기

“숨바꼭질”을 설명해 주고 5-6명 학생을 선정하여 놀아보게 함(방법 알기)

— 환등연시 :

“팽이돌리기”를 연시. 학생들 순서적으로 말하기

“연피우기”를 연시. 학생들 순서적으로 말하기

교원종합(재미나고 생동하게 표달하는가를 평가)

— 흑판에 “뚝다리놀이” 제목판서

교원이 유래를 설명

교원이 노는방법 설명

— 학생복술(출판에 판서하고 판서한 단어를 넣어 몇학생 복술한다.)

“뚝다리놀이” — 창립, 중년, 처녀들, 소녀, 소리 : 흥겹게

— 녹화연시와 복술

녹화로 민속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달맞이”, “웃놀이”, “탈춤”, “농악무”, “줄다리기”를 보여주면서 교원과 학생이 함께 복술한다.

— 뚝다리놀이 놀기

학생조직자를 선발한다.

학생조직자가 해당 배역을 맡긴다.

학생조직자가 노는 방법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제 위치대로 서게 한다.

학생조직자가 구령에 따라 놀이를 진행한다.

유희가 끝나면 조직자가 총화한다.

교원이 우결함을 보충지적하고 다음번 활동을 포치한다.(활동 끝)¹⁰⁾

이 과외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김월산선생은 민속박물관을 찾아 해당자료를 찾았고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면서 활동을 조직 준비하였는데 민속놀이활동에서의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3) 전통문화활동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조선족 중소학교에서의 전통문화활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아래에서 주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하자.

(1)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의식문제와 향후 과제

사회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에 대해 아직 그 의의를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민족문화교육의 각도에서 전통문화활동의 의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학교에서의 전통문화활동이 아직 활발한 분위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활동이 민족학교 교육에서 제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우선적으로 의식상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상대하여 향후에는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의의를 널리 선전(宣傳)하여 그 의의를 알게 하여야 한다. 하여 의식상에서 다민족국가의 민족교육에서 전통문화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문화교육의 중요한 일환으로

10) “민속놀이 뭇다리놀이 활동설계”(김월산, 「중국조선족교육」 1994년 7월호)

삼고 그 위치를 바로잡으며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의 첫부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 조선민족문화교육을 잘 해야 할 의의를 알게 된다면 중소학교에서의 전통문화활동은 사회의식적 기반이 있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문화 함양의 사회의식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력을 넣고 우선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의식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전통문화활동의 체계화 문제와 향후과제

지금 전통문화활동이 소학교 단계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지만 초중, 고중 단계에서 잘 맞물려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내용상이나 조직체계상에서 모두 계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전통문화활동을 체계화하는데 큰 힘을 들여야 한다. 활동내용을 소학교로부터 고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배치하여 교육현장에서 계통적으로 활동을 조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과목과의 연계에 주의하면서 활동을 배치하며 학과목에서의 전통문화 내용을 잘 발굴해내야 한다.

그 다음 전통문화활동을 민족학교에서의 과정계획(課程計劃)에 넣고 시간적으로, 물리적 담보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학과과정에서의 전통문화교육과 활동과정에서의 민족문화교육을 서로 적절히 결합시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히 지적한다.

(3) 전통문화활동 내용의 빈약성 문제와 향후 과제

지금 교육현장에서 전개되는 전통문화활동을 내용영역별로 보면 아직 그 내용이 풍부하지 못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어떤 학교나 교원들은 전통문화활동을 조직하려는 의욕은 있으나 전통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하여 조직 못한다.

이런 문제에 상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교원용 참고서를 편찬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활동을 해온 학교의 경험들을 소개하여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조선족 중소학교의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연구를 앞세우고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실험연구를 다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문화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4)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과 향후 과제

전통문화활동에서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감상하고 요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전통문화활동은 체험위주의 활동으로 꾸며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체험이 대부분 학생 내지 모든 학생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문화활동 중에서 자라나는 우리 민족 후대들이 전통문화를 감상, 요해하며 몸에 익히고 체험하여 민족문화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맺는글

본문에서 필자는 이상으로 전통문화 활동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의 의의를 다민족국가의 민족교육을 입장과 시각에서 밝혔고, 전통문화활동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여러 모로 소개하였으며, 나중에 현실적인 몇가지 문제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이런 의의있는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런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앞으로 조선족 중소학교들에서는 전통문화활동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해소하고 전통문화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 우리 민족의 후대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며 우리 민족문화의 새로운 도약과 창달을 위해 힘과 지혜를 바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과 그 문화를 염원하는 축제

「이쿠노민족문화제」

김 양 주*

1. 머릿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 민족이 두개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참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려는 마음에서 올해도 우리는 다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마당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기쁨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략)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해방후 40여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 일본사회의 부조리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끼리 서로가 외면하는 풍조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야 할 삶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으며 조국에 대한 인식은 날로 회박해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알지 못하는 젊은 2·3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쇠사슬을 끊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제를 통해 정치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고유한 문화전통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놀이마당이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떳떳히 살아 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의 문화를, 민족의 넋을!”

(1986년 10월 19일 '86生野民族文化祭實行委員會)

민족을 노래하리라!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어린 목소리, 의기양양한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 우리들의 목소리

* 베제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리를 다 모아 묵청껏 민족을 노래하리라! 달이 뜬다. 어깨가 축춘다. 몸짓이 웃기지요. 부채의 꽃이 활짝 필니다. 비록 이국땅 일본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참된 잔치를 만들어 보자는 소박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는 이쿠노민족문화제 다섯돌이란 뜻깊은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이 마당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마음속으로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일동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공지,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거부하는 이 좁은 사회는 2세·3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더욱이 조국의 분단은 우리들의 마음조차 두개로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요된 삶을 거부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에게 보일만한 뛰어난 솜씨가 있는 것도,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을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에서 떨어져 사는 우리들이지만 민족의 주인으로써,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한마당 펼쳐 보자고 모인 것입니다. 이 마당에서 우리들은 민족을 만나 손잡으므로써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의 문화를, 민족의 넋을!”

(1987년 10월 25일 '87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會)

재일교포들의 축제로서 「生野民族文化祭」(이하 「이쿠노민족문화제」로 표기)가 어떠한 목적과 취지로 행해지고 있는가는 이상과 같은 취지문이 몇마디의 설명보다도 더 잘 웅변하고 있다 하겠다. 우선 필자가 참가 관람한 1986년, 1987년, 1988년의 「이쿠노민족문화제」를 중심으로 그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이쿠노민족문화제」의 현재

1) 행사와 구성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 문화를! 넋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983년에 시작된 「이쿠노민족문화제」는 1995년 올해로 제13회째를 맞고 있다. 우선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 1983. 10. 16. (일) 御幸森小學校

제2회 1984. 11. 4. (일) 鶴橋中學校

제3회 1985. 10. 27. (일) 中川小學校

제4회 1986. 10. 19. (일) 大池中學校

제5회 1987. 10. 25. (일) 舍利寺中學校

제6회 1988. 10. 30. (일) 鶴橋小學校

제7회 1989. 10. 29. (일) 鶴橋中學校

이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이쿠노민족문화제」의 개최일자는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10월 중순경에서 11월 초 사이의 주말에 행해짐을 알 수 있다. 당일 우천시에는 대개 그 다음 주로 한주가 연기된다. 장소는 이쿠노구(生野區) 인근에 있는 국민학교(일본식으로는 소학교) 혹은 중학교 교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적인 축제의 시작은 본축제 전날인 토요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지역농악퍼레이드」란 이름으로 지신밟기 행사가 오후 3시경부터 행해지기 때문이다. 본행사는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본격적으로 행해지는데 우선 89년의 경우를 예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지역농악퍼레이드」가 시작된다. 이쿠노구 일각에 위치한 성화사회관(聖和社會館)에 원색의 민족의상 차림으로 모인 약 150명의 풍물농악대는 팽과리 소리를 신호로 「農者天下之大本」이 쓰인 농기를 앞세우고 사회관을 출발한다. 농악대는 주로 젊은이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다수인 점도 특징이다. 풍물을 앞세운 농악대는 이쿠노 지역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는데, 각 집 앞에서 그 집의 제액과 초복을 빌어 주는 것은 한국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약 1시간반 정도 돈다움 돌아온다.

29일 일요일 아침, 성화사회관을 출발한 농악대는 농악퍼레이드를 하면서 행사장소인 학교운동장으로 향한다. 이 때 가장행렬이 따르기도 한다. 운동장에는 전날부터 미리 준비된 현수막등과 함께 행사를 위한 마당이 준비된다. 10시부터 농악과 布編舞(당신줄)에 이은 개회선언과 함께 고사가 행해진다. 11시에 칼춤, 탈춤, 부채춤 등 그동안 연습한 춤돌이 각 팀별로 공연된다. 11시40분부터 노래자랑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즉석에서 참여한다. 12시 30분 부터 사물놀이가 행해진다. 이와 함께 김치자랑 콘테스

토도 열린다. 이 즈음에 점심식사를 겸하게 되는데 회장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펼친 모습은 한국의 가을운동회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1시 부터는 민속놀이대회가 열린다. 씨름, 닭싸움, 강강술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시10분부터 「공동작업코너」가 마련된다. 이것은 가운데 마당판 외곽으로 마련되는 놀이 코너로 마련되어 윷놀이, 장기,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판 등이 설치된다. 또 한국음식들을 파는 가게들도 주위에 설치되어 불고기, 비빔밥, 떡국등을 판다. 그 밖에 술과 음료수, 민예품, 자작물건 등을 파는 가게도 늘어서는데 이들은 모두 독립채산제로 하루동안 운영된다. 2시2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친 마당극이 끝나고 나면 3시20분에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구경꾼들도 포함해 적당히 두패로 나뉘어 행해진다. 줄다리가 끝나면 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군무가 시작된다. 즉 풍물대의 농악을 선두로 참가한 사람 모두(이 해에는 약 4천명이 모였다고 한다)가 운동장을 돌면서 춤을 춘다. 여간해서 끝나지 않는 군무는 폐회선언과 함께 4시경에 아쉬운 막을 내리게 된다.

2) 「이쿠노민족문화제」 실행위원회

축제를 위한 기획과 준비는 전년도 축제가 끝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것은 그 해 여름쯤부터 시작된다. 7월 경부터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며 8월 중순경에는 연습이 시작된다. 마당극, 춤, 농악, 청년고전무용, 어린이무용 등이 각 그룹별로 인원을 모집하고 한 주를 요일별로 나누어서 연습에 들어간다. 동시에 행사에 쓰일 선전물, 장치와 소도구등도 차근차근 준비된다.

이렇게 기획부터 참가모집, 연습, 외부와의 연락, 뒷처리 등 민족문화제의 모든 일을 맡게 되는 것이 그 해에 결성되는 「이쿠노민족문화제실행위원회」이다. 이 위원회가 실제로 설치되어 활동하는 장소는 이쿠노구(生野區) 모모다니(桃谷)에 자리잡고 있는 성화사회관(聖和社會館)이란 곳이다. 문화제를 위한 모든 것, 즉 모든 인적·물적자원은 이곳을 통하여 조달되고 배분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화사회관이 민족문화제의 거점이 된 것은 오래전부터 이쿠노구의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사회관은 본래는 기독교 관계 기관으로 1950년 6월에 처음 설립되었다고 한다(현재 옆에 성화교회가 있다). 「어린이 클럽」이 생기고 「가족회」(어린이 학부형회)가 만들어지면서 부모와 자식간의 「배움의 장」이 시작되었고, 1962년에 미국 부인들의 헌금으로 현 사회관의 3층 건물이 만들어져 성서를 배우고 강연을 들으며 독서회를 열게 되었다. 그후 1982년에 「사회복지법인 성화공동복지회」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화활동·씨름활동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같이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조선인¹⁾의 점점 역할을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관활동의 큰 목표는 「만남의 장 만들기」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사회관활동으로는 피아노교실, 습자교실, 회화교실, 지역도서실, 요리교실, 한국어교실등이 있다. 협력사업으로는 어머니교실, 사교댄스, 「신체를 생각하는 회」, 재즈댄스, 발레교실 등이 있으며 보육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관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즉 단순한 장소 제공이란 역할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2세·3세 청년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민족성을 확립해 나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해 오고 있다. 성화사회관 관장을 맡고 있는 김덕환씨의 경우 재일교포 2세로서 민족문화제를 기획하고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람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쿠노민족문화제」의 발단은 ‘동포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이쿠노에 조선 축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어떤 1세 할아버지의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재일교포를 위한 여러 종류의 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일한국인거류민단(통칭 민단)과 재일조선인총연맹(통칭 총련)이란 두 조직이 행하는 행사는 있었지만 참가하기에는 정치적 입장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한국·조선인으로서 자신을 내보일

1) 현재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하나 특기하여 둘 것은 이곳 사람들은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어느 특정 국가의 명칭은 가능하면 피하고 많은 경우 「우리나라」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수 있는 장의 마련,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후세들에게도 민족의 자부심을 체험시켜 주고 싶다는 본능적 욕구가 민족문화제의 강력한 동인이 된 셈이다. 그 후 약 10명 정도로 실행위원회를 결성해 일을 시작하게 되나 1년후의 민족문화제 당일에는 300명 이상의 교포청년들이 회장에서 직접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존의 조직에 연연해 하지 않는 자주적인 참가였음은 물론이다. 각종 운동·활동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자금 모금에서 의상·악기 마련, 무용이나 극의 연습, 회장 준비 등 모두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일본사회에서 처한 입장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문화의 공유자라는 단 하나의 공통분모로 시작한 민족문화제인 만큼 행사프로그램도 이점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 중에서 첫회부터 거르는 일없이 계속되어 온 마당극은 그 형식과 의미 그리고 쏟는 열정등으로 해서 특기해 둘 필요가 있다. 마당극은 「마당극회」 멤버들이 주체가 되어 1983년 제1회 때는 「호랑이놀이」를, 84년 제2회 때는 「잠녀풀이 할망」이 행해졌다²⁾ 85년 제3회 때는 「토끼전」, 그리고 86년 제4회때는 「도깨비놀이」³⁾, 87년 제5회에는 「호랑이의 환갑잔치 초대」⁴⁾, 88년의 제 6회때는 「3년고개」, 89년 제7회 때는 「무명치마저고리」가 각각 행해졌다.⁵⁾ 이들 마당극은 내용선정과 연습과정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의미에서 민족문화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들은 마당극의 내용과 정신이 그렇듯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조국의 모순 그리고 그것의 극복 — 민족통일, 조국의 민주화,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해방 — 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함께 만들어낸 공동창작 작품들인 것이다.

2) 이것은 이곳 주민들 중에 따라서 참가자들 중에 제주도 출신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3) 분단·봉건·배금·동화(同和) 도깨비들이 등장한다.

4) 첫째마당 해방마당, 둘째마당 분단마당, 셋째마당 깃발춤으로 구성되었다.

5) 이것은 재일교포사회가 1세에서 2세로 세대교체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 젊은이의 눈으로 보는 1세의 모습과 2·3세가 함께 나누려는 「해방」을 주제로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渡海춤을 시작으로 첫째마당 할머니마당, 둘째마당 어머니마당, 셋째마당 저고리마당으로 이루어졌다.

3. 「이쿠노민족문화제」의 잉태지, 「이카이노」

오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는 현재 일본내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⁶⁾ 이쿠노구의 전체인구는 약 16만명인데 그 중 한국·조선인은 약 4만명(87년 7월 현재))으로 4명에 한명꼴인 셈이다.⁷⁾ 이 쿠노구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히라노천(平野川) 연변의 동서 0.8Km, 남북 1.9Km 지역을 예전부터 이카이노(猪飼野)라고 불려왔다. 이쿠노구에서 특히 한국·조선인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카이노 지역이다⁸⁾. 이카이노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조선인의 최대 밀집지역이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이카이노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약 4만명과, 이른바 「자력입국자」를 포함한 미등록자를 합치면 실제 숫자는 5만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다.

취업과 산업구조면에서 보면 이카이노에는 자가영업이나 가내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세상공업자가 많다. 가내공장에서 제일 많은 것이 「헴프」로 불리우는 샌달공장으로 무수하게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이곳이 일본에서 샌달의 우수한 산지가 되어 있다. 이카이노는 한마디로 영세공장의

6) 일본내의 한국·조선인 인구는 전국적으로 약 70만명이며 그 거주지역은 전국에 미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의 집중이 눈에 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당시의 재일한국·조선인 인구는 약 240만명이었는데 그 중 많은 수가 조국에 귀국하여 일본에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 숫자이다. 이 중에서도 大阪, 兵庫, 京都 등 近畿지방에의 인구 집중이 현저해서 이들 지역만으로 전체의 50%를 점하며, 전국 市町村 단위에서는 이쿠노구가 한국·조선인의 인구밀도 일본 제일로 되어 있다. 재일한국·조선인이 대도시의 과밀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과밀도시에서 가능한 직업만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7) 이 비율은 높아가는 경향에 있다. 이쿠노구는 일본인의 인구유출이 현저하고 충수는 감소해가는 것에 비해, 한국·조선인은 계속해서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在日뿐만 아니라 이른바 滞日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즉 한국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 1973년 2월 1일부의 주거표시에 의해 이카이노란 지명은 지도에서 없어졌다. 현재는 버스정류장 이름의 「猪飼野橋」와 平野川에 놓인 「猪飼野新橋」에만 그 이름이 남아있다. 옛날에는 「이카이노」란 지명 하나만을 의지하고 이 거리에 찾아 들어왔다고 하며 「일본국 이카이노」란 주소만으로 한국·조선으로부터 편지가 닿았다고 한다.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공장이라 해도 실제로는 가정집을 작업장으로 개조한 것으로 공장으로 부르기 힘든 것이 많다. 이 가내공장에서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일하는 모습이 이카이노의 풍경이다.

이카이노에 한국·조선인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20년경이라고 한다. 본래 이곳은 1910년대까지는 히라노천이 사행하는 지역으로 매년 두세번 정도는 무릎까지 물이 차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습지대였다고 한다.⁹⁾ 제1차세계대전 무렵부터 국도로 악화된 생활난·주택난 때문에 옛 오오사카시역의 동쪽인이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밀주지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후 살 길을 찾아서 온 사람, 징병령이나 징용령에 의해 소집된 사람, 혹은 강제연행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거주민이 되었으며, 특히 1919년부터 시작된 히라노천 개수공사가 오늘날 최대의 한국·조선인밀집사회를 만드는 운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히라노천 개수공사에 종사한 한국·조선인노동자 중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¹⁰⁾

4. 「이쿠노민족문화제」의 의미와 과제

‘공개적으로 「조국」을 누리는 회열’ 이쿠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민족문화제가 가지는 의미는 아마도 이 한마디에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세·3세들에게 있어 민족문화제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의 실천에 다름 아니다. 누구나 민족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짐이 바로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의 문화를! 민족의 넋을!’이라는 캐취프레이즈이다.

어느 때인가 한반도에 통일이 찾아와 한반도 통일사를 다시 써야 하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기록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이쿠노민족문화

9) 이카이노에서 현재의 JR과 近鐵 鶴橋역 부근에 걸쳐서는 해발 5미터 이하의 저습지대였다고 한다.

10) 현재 제주도를 본적지로 하는 한국·조선인의 7할이 오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시원은 1920년대에 형성된 이카이노의 한국·조선인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파악할 것이다.

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민족문화제가 일찌감치 통일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국의 분열과 그로 인한 모순이 그대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던 일본내에서, 국적에 따라 한국인과 조선인으로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있던 80년대 초반의 재일교포사회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같은 문화를 공유한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어렵사리 마련된 때문이다. 1983년, 이데올로기의 제물이 되어 있던 조국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이것은 그전까지 작용하던 민단과 조총련이란 조직의 논리를 넘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난 새로운 자각이 모든 난관을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령 그들은 그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술적 역량의 부족을 극복했다. 악기나 의상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춤, 마당극, 그리고 운동이론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부족분들을 메꾸어 나왔던 것이다. 모르고 부족한 것은 조국으로의 장·단기 유학등을 통하여 보충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급속도로 축적시켜 왔다. 처음 보았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던 춤사위나 몸놀림이 2-3년만에 맛깔나게 발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탄한 기억이 있지만 그들이 이런 장족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다.

또 그들은 차별과 편견도 이겨냈다.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으로부터의 그것을 그들은 견디어 냈다. 민족문화제를 계기로 그야말로 「민족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이들은 민족과 문화를 확인하고 배우기 위하여 조국을 찾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들의 조국에 대한 짝사랑에 조국은 차별로 대우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였다. 또 조국에서 온 이른바 ‘지도적 인물’들이 그들위에 군림한 적도 있으나 이들은 이것도 이겨냈다.

그러나 민족문화제는 이제 이러한 자각과 열정만으로 이어온 시기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전환기에 서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선 상대적으로 민족문화제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 하나는 10여년을 넘긴 민족문화제의 매너리즘일 것이고¹⁾, 다른 하나는 민족문화제의 방향일 것이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급속히 그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조국의 운동의 양상과 대단히 유사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넘어야 할 과제는 역시 사람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사람의 문제는 민족문화제가 시작될 때 부터 안아 온 문제이다. 그것은 다중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다. 우선 그 상황적 조건 때문에 한국·조선인에 의한 행사에 그다지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내던 일본사람이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최장소가 매년 바뀌고 있는 것등은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도 적지 않은 사람문제를 야기시켰다. 민족문화제가 열리는 날 민단쪽에서는 같은날 같은 시각에 대형 운동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경품과 선물을 주는 것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외부적인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즉 일본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생각 차이와 그로 인한 협조·단결이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일본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인과의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 둘 사이의 갈등 해결과 협력관계의 모색이 이것들이 같은 열기와 힘으로 이어져 온 문화제가 이제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이쿠노민족문화제」는 ‘민족의 문화’를 위하여 한 시기를 통해 훌륭하게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말 그대로의 총제적 전환기에 서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축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쿠노민족문화제」 전체에 남겨진 과제의 실마리는 바로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말 속에 있을 지도 모르겠다.

요즘 일본사회에서는 국제화를 크게 외쳐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본사회로부터 당하는 억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온싷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재일동포사회의 세대교체는 민족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키워나가는가란 큰 과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
- 11)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제까지 행해져 온 레퍼토리의 다양화 및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등과 같은 과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80년대 초창기만해도 교포사회에 그다지 소개되지 않았던 탈춤과 마당극같은 형식들은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형식이 자체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데 적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당극의 새로운 형식에 대한 모색들이 요구되어지는 조국의 상황변화가 여기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많은 동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밝고한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살아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보다 좋은 동포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민족문화제는 바로 그러한 만남의 마당입니다.

(중략)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꼬마들, 그리고 친구들!!

올해도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문화를! 냅을!”

(1989년 10월 29일 '89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會)

참고문헌

太田順一(1987), 女たちの 猪飼野, 東京: 晶文社.

역동적 축제를 위하여 : 일본 코오치(高知)현의 「요사코이마츠리」

김 양 주*

1. ‘밤에 와요’ 「YOSAKOI」

일본 혼슈(本州)의 서남부에 위치한 시코쿠(四國). 4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이 섬의 서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코오치(高知)현.¹⁾ 그 한 가운데 자리잡은 현청소재지 코오치(高知)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요사코이마츠리」(마츠리는 축제의 의미, 이하 「요사코이」로 줄여 표기)는 아마도 오늘날 일본의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참가하고 싶은 축제의 하나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축제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땀으로 범벅된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도취감과 희열이다. 「요사코이」에 참가한 적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고백, 즉 축제 도중 머리속이 갑자기 하얗게 되는 그리하여 순간적으로 주위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였다는 체험담이 아니더라도 한번 본 사람은 이점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역제가 다른 사회보다 심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사회에서 축제 즉 「마츠리」(祭)는 그 분출구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마츠리 때 보여지는 사람들의 얼굴은 일상의 얼굴과 다르다. 그러나 「요사코이」는 그 어떤 마츠리보다도 하는 이(=능동적 참여자=행위자)를 도취시키는 힘이 있다. 육체가 해방되었을 때 생기는 희열감이란 이런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끝 모르는 열기는 다시 보는 이(=수동적 참여자=관객)에게로 전염되어 축제가 진행되는 한 여름의 며칠동안 온 도시를 열병에 들

*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일본에는 현재 광역자치체로 1도2부56縣이 있다. 코오치현은 그 중의 하나이다. 코오치현의 북쪽으로는 에히메(愛媛)현, 카가와(香川)현, 그리고 동쪽으로는 토쿠시마(徳島)현이 있다. 코오치현은 이 네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시코쿠의 서남부를 동서로 길게 활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뜨게 한다. 「요사」는 밤,²⁾ 「코이」는 오라, 즉 ‘밤에 와요’라는 말 뜻과 함께 축제의 밤은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³⁾

2. 「요사코이」의 내용과 구성

인구 약 32만명의 지방도시인 코오치시의 연중 최대의 축제인 자리잡은 「요사코이마츠리」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해진다(1995년 현재). 요사코이마츠리의 구성과 그 내용은 대단히 간단하다. 구성은 우선 첫째날인 9일은 「전일제」(前日祭), 마지막날인 12일은 「후야제」(後夜祭)이며 10·11 양일간이 본축제로 되어 있다.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축제기간 동안 참가팀들이 특설된 장소에서 그룹별로 패를 지어 춤을 추는 것이다. 여기서 참가팀이란 「오도리코타이」(踊子隊)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춤 그룹들이다. 일본어로 「오도리」(踊)는 춤이며, 「오토리코」(踊子)는 본래는 춤추는 소녀, 무희 등을 뜻한다. 그러나 「요사코이」에 참가하는 오도리코들은 남녀노소가 모두 들어가므로 여기서는 성별 혹은 프로·아마추어에 연연하지 않고 춤추는 사람 모두를 가르킨다. 우리말로 춤꾼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한편 「오도리코타이」는 이 오도리코들이 대(隊) 즉 그룹을 이룬 것이므로 우리말의 춤패 정도가 될 것이다(이하 「오도리코대」로 표기).

이렇게 각개 참가그룹이 특색있게 고안한 춤 — 이를 통칭해 「요사코이나루 코오도리」(よさこい鳴子踊り)라고 한다 — 으로 시내를 난무하는 카니발인데, 그 열기와 규모에 비하여 아주 간단소박한 전제규정이 있을 뿐이다. 즉, 다른 마츠리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행사와 의례 그리고 정교한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참가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인지도 모르겠다.

2) 코오치현의 옛이름인 토사(土佐)의 사투리이다.

3) 「요사코이마츠리」는 1987년 이래 1992년, 1993년, 1995년도에 참여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4) 前日祭는 1991년부터 추가되었으며, 1995년도부터는 後夜祭가 추가되어 현재와 같은 4일간으로 되었다.

1995년도로 제5회째를 맞고 있는 전일제에는 특별히 선발된 23개 춤팀이 중앙공원경연장에 설치된 특설스테이지위에서 경연을 벌인다. 이때 코오치시를 흐르는 카가미강(境川)위에서는 코오치시 관광과가 주관하는 화려한 불꽃놀이대회가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이를 스타트로 이틀간 시내 10개소에 설치된 각 「경연장」에서 약 150단체 약 2만명의 오도리코들에 의한 춤의 향연이 시작된다. 마지막 날의 후일제는 다시 중앙공원경연장에서 7시부터 개연된다. 여기서 금년도의 그랑프리 수상팀을 선정하고 마지막 열기를 사르게 된다.

축제기간 동안 동시 개최되는 부속행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시내의 한 주차장을 공간으로 하여 「요사코이광장」이란 이름의 행사가 마련된다. 이것은 본축제 이틀간 오후3시부터 밤9시까지 열리는데 이곳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즉석에서 참가하여 춤출 수 있게 지도를 해주며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요사코이 프렌도리-파크」라는 공간이 본축제 이틀간 오후 1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마련되는데 이곳은 오도리코들의 대기장소로서 본부 경연을 앞둔 워밍업과 리허설을 하는 장소이다.

3. 「요사코이」의 심볼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요사코이」는 참가하는 팀에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기본규정이 있다. 그 첫째는 「나루코」(鳴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루코」란 조그마한 주걱과 같은 모양을 한 판자의 넓은 양쪽 부분에 두개의 작은 판자를 대어 흔들면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악기이다. 쉽게 캐스터넷츠를 연상하면 된다. 이 「나루코」를 가지고 춤추는 것은 요사코이 기본 루울의 하나이지만 한마디로 나루코라해도 각팀이 자신들의 오리지널 나루코를 40년 동안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나루코를 가지고 춤추는 것은 전체의 리듬을 맞추기 쉽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음악에 탈 수 있는 리듬악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음악은 그 기본으로 「요사코이부시」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시(節)란 음악의 선율 가락 즉 멜로디를 말한다. 따라서 「요사코이부시」는 요사코이멜로디가 될 것이다. 「요사코이부시」는 에도시대 토사(土佐) 오대산(五台山) 죽림사(竹林寺)의 중이던 준신(純眞)과 오우마(お馬)와의 사랑이야기를 풍자해서 만들어진 민요이다. 이 「요사코이부시」를 기본으로 해서 리듬과 나루코가 만들어지고, 若柳・花柳・藤間・坂東・山村과 같은 일본무용의 다섯유파에 의해서 춤의 안무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현재 이른바 정조(正調) 「요사코이부시」이다. 참가팀들은 그 시기의 유행에 따라 삼바・록크・재즈・레게・전통음악 등 다양한 춤과 리듬을 채택할 수 있으나 어느 한 부분에는 반드시 이 요사코이부시를 삼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멜로디를 모태로 하여 시대의 음악이 「요사코이」를 춤추게 해 온 셈으로 지금의 「요사코이」는 모든 장르의 음악과 춤의 융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가 공약수으로서의 「나루코」와 「요사코이부시」에 「지카타샤」(地方車)라고 불리는 심볼이 추가된다. 열을 지어서 춤추는 각 오도리코대의 제일 앞을 요란한 음악과 화려한 장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지카타차(이하, 이렇게 표기)이다. 한마디로 「요사코이」를 위하여 개조 장식한 대형트럭으로 그 주된 기능은 뒤따르는 춤패에게 음악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 위는 라이브밴드의 스테이지로, 기타와 드럼 혹은 북(和太鼓)같은 악기와 여러개의 고성능 대형앰프등으로 채워져 있다. 차의 겉면에는 각팀의 이름과 함께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데 팀 칼라와 특색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각 팀이 자작으로 거금을 투자하고 머리를 짜서 여러 장치들과 장식을 마련한다. 거의 대부분이 생연주이므로 라이브와 같은 느낌을 주며 특히 성능좋은 앰프는 바로 그 뒤에 서면 온몸이 떨릴 정도의 볼륨을 낸다. 이것이 「요사코이」의 분위기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요사코이」에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의상이다. 이전에는 유카타(浴衣) 차림에 게타를 신는 것이 주류였다. 그것이 지금과 같이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의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삼바등의 유행과 함께 주역이

된 「하피」(法被) 스타일이 등장하고 부터이다. 이 「하피」란 본래 직공이나 점원등이 걸치는 상호가 박힌 짧은 겂옷이다. 찰쭈기 쉽고 격렬한 움직임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류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의상이다. 그 중에는 코오치의 특산품인 화지(和紙)풍의 하피등도 있다. 칼라폴한 색 조합과 팀의 개성적인 디자인이 「요사코이」의 한 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상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화장이다. 화장이라 해도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와 온몸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이것 역시 그 화려함과 다양함은 곧 참가자와 팀의 특색과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바디랭귀지인 셈이다. 이와 같이 각 팀의 오리지날 나루코·요사코이부시(춤과 음악)·지방차·의상·바디페인팅은 「요사코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심볼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요사코이」의 역사

「요사코이」는 현재 「요사코이祭振興會」(이하 「요사코이진흥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주체는 코오치시 상공회의소이다. 요사코이진흥회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전후 복구를 통해 황폐한 시민생활이 안정을 보이기 시작한 1954년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함과 동시에 여름철 불경기를 타파하고 상점가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코오치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이때 시작된 「요사코이」는 그 후 발전을 계속해 1993년의 제40회 때에는 오도리코대가 144팀, 오도리코는 약 16,50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시민 20명에 한 사람의 비율로 축제에 출장한 꼴이 된다고 한다. 한편 관객도 급격히 증가하여 39회 때에는 현 전체 인구에 필적하는 85만여명이 구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행정주도의 이벤트는 다종다양하며 그 수도 적지 않지만 그 대부분은 현재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사코이」는 확실히 성장을 계속해 성공한 이벤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는 주최자의 손을 떠나 홀로건기를 하

고 있는 감조차 있다. 즉 상공회의소 내의 「요사코이진흥회」는 큰 틀만을 제시하면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관할 뿐이고, 축제의 상당 부분은 참가자측의 자발적인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최자측의 방향 설정도 작용하였겠지만 그 요소와 내용, 즉 춤·음악·의상 등에 있어서 참가자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오도리코대의 편성이 가능하였고, 이는 참가자들을 자연발생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전성기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요사코이」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상호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 상호작용의 한 방향은 지역사회가 축제에 영향을 주는 방향, 즉 참가자측의 특징이 축제 전체의 질과 내용을 바꾸는 국면이다. 다른 하나는 축제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방향, 즉 주최자측의 의도가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주최자측은 참가자측의 변화를 노려서 큰 틀을 결정하며 한편 참가자들의 변모는 다시 주최자측의 기획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요사코이」를 이해하는 데 지역사회와의 관계, 즉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는 중요하다. 이 점을 참가집단과 축제공간이란 두가지 점에 주목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5. 참가 집단으로서의 「오도리코대」

「요사코이」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중 주역이 되는 참가단체는 앞에서 언급한 「오도리코대」이다. 우선 오도리코대의 모체가 되는 단체는 그 성격상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연적 단체로 상점가나 정내회(町内會)등이 그것이다. 둘째로는 사연(社緣)적 단체로 회사나 학교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중에는 소수이지만 댄스그룹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단체도 포함된다. 셋째로는 두번째의 그룹보다 결합계기가 약한 그룹으로 구체적으로는 동업자단체나 현인회(縣人會) 또는 「요사코이」를 위한 일시적 동호회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는 일상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단체들이다.

1954년의 제1회 때의 참가단체는 첫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상점가나 정내회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여름철 불황에 대한 상점가의 경기진작 대책으로 시

작했다고 하는 경위나 기존의 단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58년의 제5회 무렵부터는 지역기업의 참가가 급증한다. 이것은 같은 해 4월에 「남국(南國)박람회」가 코오치에서 열린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업이 선전이나 이미지 극대화 전략으로서 또는 사원후생의 일환으로서 「요사코이」를 이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959년의 제6회 때부터는 TV중계가 시작되었으며 참가단체수가 급증하고 회사의 신규참가도 두드러지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 상점가나 정내회등 지연적 단체의 숫자는 한계점에 달한 상태가 된다. 이는 「오도리코대」가 대형화하면서 지연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참가자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즉 초기에는 1개팀 인원이 20명 내지 30명정도 이었던 것에 비해서 60년대에는 한팀 50명 전후가 평균적인 규모가 된다. 60년대 후반부터 현인회(縣人會)가, 1969년에는 코오치대학(高知大學), 코오치여자대학(高知女子大學)등 지역사회 학교들이 참가하기 시작한다.

1968년부터는 일상적인 결합계기가 거의 없는, 즉 축제만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가 참가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제 15·16회에 참가한 「萬國博協賛市民팀」은 소속단체를 가지지 못한 일반시민이 참가희망해서 편성한 집단이다. 제15회의 「明治青年隊」, 제16회의 「東京漫畫集團」과 같은 그룹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이러한 경향은 「요사코이」의 인기상승과 함께 「요사코이」의 대중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1967년의 제14회부터 지역민방인 코오치방송(高知放送) 외에 공영방송인 NHK도 중계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에는 오오사카 만국박람회 무대에 나루코춤이 초대되기도 하였다. 또 이 시기부터 춤출 때의 의상이나 안무가 급속히 자유롭게 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성격의 집단의 등장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문화변화에도 무관하지 않다.

70년대 즉 1973년도의 제20회부터 29회의 1979년 까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젊은층의 참가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춤의 리듬이 빨라졌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참가가 늘었던 것이다. 이것은 72과 73년의 니스카니발에의 참가를 계기로 춤의 리듬과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층의 참가로 참가자수와 참가단체수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두번째로는 오도리코의 이

른바 「일반모집」이 시작된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층의 참가는 「요사코이」로부터 중·노년층을 쫓아내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이미 대형화한 오도리코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즉 오도리코대의 「정원」에 맞출 정도로까지는 젊은층이 모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연·사연 등으로 오도리코를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비교적 연령이 높은 세대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딜레마 앞에서 기업·회사 등은 오도리코 부족분을 아르바이트로서 「일반모집」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70년대에 참가집단의 성격이 이전과 달리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즉 참가단체명이 기업으로 되어 있어도 그 실질적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즉 사연으로는 한정되지 않고 선택연의 원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크게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1981년의 제28회부터는 리듬·음악·안무 등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 이전은 현장에서 즉석 참가도 가능한 춤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追手筋본부경연장과 중앙공원경연장 2개소에서는 기본형인 이른바 「正調」춤이 의무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해부터 각 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듬과 음악으로 경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현재의 같은 「노상디스코」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의 참가단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연적 단체 중 「지구(地區)어린이회」나 각종 학교팀들은 증가하지만 상점가 정내회와 같은 단체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는데 지나지 않는다. 학교팀은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로 청소년층을 포함하는 사연적 단체이다. 그리고 「요사코이」만을 위해 성립된 단체 이른바 — 임의단체(voluntary association)들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나 스넥과 같은 술집이나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나 그 친구·가족들이 「요사코이」에 참가하기 위하여 급조한 팀이 그것이다. 제39회에는 「무국적」이라고 하는 이름의 오도리코대가 참가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의 거점조차도 기존의 점포등에서 구하지 않고 소수의 리더의 제안에 유비통신으로 멤버들이 충원된 경우로 말 그대로 ‘무국적’인 셈이다. 이렇게 이른바 「일반모집」을 행하고 있는 단체는 상당수에 달하게 되는데 팀명은 지연이나 사연을 나타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선택연원리에 기초한 임의단체적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일반모집」은 기업이 돈을 대고 모집하는 「아

르바이트」에서 참가자가 팀에 직접 참가비를 치르는 「자비출전」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현재의 오도리코대의 집단으로서의 특징은 「일반모집」이라고 하는 말로 대표된다. 오도리코대의 팀명은 상점가나 기업 이름이더라도 그 멤버의 상당부분은 ‘외인부대’인 경우가 많다. 제40회 요사코이 축제 3개월전인 1993년 5월에는 참가 144개 단체중 52개 단체가 이미 「일반모집」을 시작하고 있다. 사원을 축제기간 2~3일동안 쉬게 할 수 없는 기업은 물론이고, 상점가에서도 일반모집을 행하는 곳이 많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립가능한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규모상에서 체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그 대부분이 일반모집을 행하고 있다. 「일반모집」은 이 시기 이후로도 유비통신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최종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한다. 추측가능한 것은 유서깊은 몇개 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오도리코를 일반모집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외지에서 참가하게 되는 현인 회조차도 코오치 현지 채용을 행하고 있다. 이 「일반모집」이라는 시스템은 1970년대 중엽에 시작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리듬·음악·안무가 자유롭게 되면서 젊은층 참가자들은 소위 ‘각코이이’ 혹은 ‘이키나’라고 표현되는 보다 ‘폼나고’ ‘멋있고’ ‘눈에 띄는’ 오도리코대에 응모하게 된다. 참가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오도리코대에 평균 2만엔 전후에서, 많은 경우는 4만엔 정도(1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소위 「참가비」를 지불하면서 「일반모집」에 응모한다. 응모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르바이트시대에는 의리상 매년 같은 팀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참가비를 치르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마음에 드는 팀을 선택해 매년 이적하게 된다.

이는 일반 모집으로 구성된 팀은 구성원의 유동성이 대단히 높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당연한 귀결로 통시적인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도 성립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한 보고(内田, 1994)는 여러 시사점을 준다. 그가 관찰한 1992년의 어떤 오도리코대의 경우 총수 123명중 「일반모집」으로 모인 멤버는 67명으로 그 대부분이 20세 전후이었다. 「일반모집」의 경우 한 사람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적고 친구끼리 몇명이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연습

시나 축제기간 그리고 해산시까지 전기간을 통해서 같이 입회한 친구이외의 다른 멤버와 거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서로의 이름이나 신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산시에는 상당한 만족감과 충실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년 오도리코대를 옮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연속해서 같은 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즉 「일반모집」으로 성립된 팀 안에서의 개인의 익명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6. 축제 공간으로서의 「경연장」들

「요사코이」는 그 성격상 전술한 바와 같이 오도리코대가 줄지어 춤을 추면서 이동하는 퍼레이드 형식을 벌인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참가단체와 인원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긴 거리를 가진 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는 시내 10개소가 경연장으로 쓰여지고 있다. 旭, 上町, 升形, 愛宕, 追手筋, 万万, 中央公園, 菜園場, 知寄町, 우메노초지(梅ノつじ)경연장이 그것으로 이중 追手筋과 중앙공원경연장은 유료로 되어있다. 현재 전일제와 후야제의 심사와 함께 이용되는 중앙공원경연장은 스테이지 형식을 띄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일반 시가지 혹은 상점가의 길들이다. 「오도리코대」들은 이 경연장 사이를 전용의 대형버스로 이동하게 된다. 각 경연장은 그 곳에서 행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⁵⁾ 그 특징은 다음과 다음과 같다.

① 中央公園경연장 : 코오치시의 한 가운데 자리잡은 이벤트회장으로 평소에도 자주 사용되는 곳이며 관람은 유료이다. 「요사코이」 전일제와 후야제가 행하여지며 축제기간 동안 스테이지가 심사석으로 된다. 여기를 경연장으로 쓰는 것은 코오치시의 중심상점가이다. 제1회 때부터 「요사코이」와 그 역사를 함께 해온 경연장이다.

② 追手筋경연장 : 이곳은 본부경연장이다. 평소에는 「日曜市」로 알려진 일

5) 1995년의 경우 중앙경연장에서는 9일의 전일제와 12일의 후야제가 오후 6시30분에서 밤 10시까지 열리고 10·11일은 오후 1시30분에서 밤10시까지 행해진다. 추수근경연장은 10·11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리고 이 두 곳을 제외한 다른 경연장은 10·11일의 오후 12시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열린다.

요시장이 서는 곳으로 유료관람석은 인기가 높아 이틀간에 4회전한다고 한다. 특히 야간석은 발매일 당일로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라고 하며 현외로부터의 관광객도 이곳을 잘 이용한다. 북쪽에 위치한 追手前교앞이 자유석이며 남쪽의 追手前高小學校가 지정석으로 되어있고 제일 잘 보이는 곳은 고교의 정문근처라고 한다.

③ 旭경연장 : 사티(SATY)백화점 앞의 버스레인이 무대가 된다. 사티백화점이 밤 9시까지 개점하고 있으므로 관객이나 오도리코들은 냉방이 들어오는 점내에서 편히 기다릴 수가 있다. 주차장도 넓어서 이동 버스가 15대 이상 대기할 수 있는 점도 호평을 받는 이유이다. 입구 서쪽으로는 관객용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조명을 받으며 열기넘치는 춤공연이 가능한 곳이다.

④ 上町경연장 : 上町은 戦前부터 번영한 상점가로 전차길 북쪽보도가 경연장으로 되어 있다. 旭과 升形の 중간에 있어서 교통편이 좋은 곳이다. 또한 전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팀을 단시간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1회부터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유지시켜 왔으며 여성스태프들이 세심한 배려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오도리코는 「上町요사코이(酔さ来い)鳴子連」이란 이름으로 출장하고 있다.

⑤ 升形경연장 : 거리는 100미터 정도로 짧지만 升形상점가는 전면통행금지 행하기 때문에 넓은 차도를 전부 사용하여 춤출 수 있는 경연장이다. 최근 새로 단장한 아케이드에 야간조명으로 어느 경연장보다 밝은 것이 자랑의 하나이다. 한번에 두팀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적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⑥ 愛宕경연장 : 이곳은 매주 금요일에 길가시장인 「金曜市」가 개최되는 곳이며 코오치현에서 거리가 가장 긴 상점가이다. 때문에 심사장은 2개소에 있으며 접대소도 입구와 출구 2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피크시에는 버스 15대가 늘어선다고 한다. 춤은 어디서부터도 잘 보인다. JR건널목 북측에서 시작된 춤이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도 아케이드를 메우는 인파로 밤늦게까지 흥청거린다.

⑦ 万万경연장 : 코오치시 북부에 위치한 만만상점가는 가등이 화려한 전장

400미터의 긴 경연장이다. 연도에는 삼중으로 사람벽이 생길 정도로 밤에도 많은 인파가 넘친다. 오도리코 접대는 각 경연장 중에서 제일 좋다는 평판과 함께 청결함, 서비스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본부심사석 설비도 좋으며 심사는 5반으로 나누어서 행한다. 오도리코는 「万万商店街振興組合」이란 이름으로 출장하고 있다.

⑧ 菜園場경연장 : 옛날 지명으로 시장의 모습을 남기고 있는 상점가이다. 제1회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 빨라 다른 곳을 리드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한다. 경연장은 아케이드와 가로수가 햇빛을 어느 정도 가려 넓은 거리를 마음대로 춤출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항상 세템에 들어와서 회전도 빠르다.

⑨ 知壽町경연장 : 이곳에 위치한 사니(SUNNY)빌딩의 협력으로 넓은 회장을 확보하고 있다. 아직 경연장으로서의 새로운 회장이지만 250명이 앉아서 볼수 있는 입체관객석 등이 있다. 야간에는 스포트라이트나 제등으로 화려함이 더해진다. 이 지역 출전팀으로서 「사니그룹」과 「호무랑」이 있다.

⑩ 우메노초지경연장 : 코오치시를 관통하는 가가미강(鏡川) 근변의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경연장이다. 제1회부터 계속 참가한 관록과 서비스와 청결함이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점이다. 좁은 넓은 도로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며 야간조명도 지역의 협력으로 호화롭다. 천변으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追手筋경연장은 본부경연장이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다. 길 양쪽 즉 평소에는 인도인 곳에 계단식으로 관람석을 설치하고 이곳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곳은 코오치역에서 코오치성으로 통하는 도로로 무성한 가로수와 돌담 등이 풍취를 자아내는 곳이며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을 받게 되면 고혹적인 분위기를 띄게 된다. 정열적인 축제와 어울려 축제공간으로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상점가들은 현대식으로 개조해 아케이드형태로 만들어진 곳이 많으며 이곳들은 대단히 밝고 그야말로 모던한 분위기를 띄고 있는 곳이다. 전자는 자연적인 측면이 무대장치로서 작용하는 장으로, 후자는 인공적인 분위기의 장으로서 각기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참가자는 물론이고 관객에게도 다른 공간과 분위기를 맞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관객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 여러 곳의 장소를 선택해서 자기의 취향대로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축제공간으로서의 경연장은 과거 여러번 변경되어져 왔다. 제1회(1954)부터 제5회(1958)까지는 하리마야다리 부근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중심부가 경연장으로 쓰여졌다. 또 이 시기의 경연장 설치 장소는 유동적이며 1960년대 이후의 경향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상점가로서 발전하지 못하는 곳은 경연장으로부터 이탈되어져 간다. 제5회 때의 秦농협 앞은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 회장은 1회만으로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제6회(1959)에 경연장으로서 上街, 旭町, 知壽町の 3개 경연장이 춤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정된다.⁶⁾

이들 장소는 시가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상업의 소중심지이지만 시가지가 동서로 확대됨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들은 코오치시의 이른바 「大街」에 대응되고 있다. 전후 코오치시는 행정의 지구단위로서 크게 시가지를 「本所」 교외지를 「支所」로 분류하고 本所를 다시 아홉개의 「大街」⁷⁾로 구분했다. 그중 상업지화가 진행된 上街, 旭, 下知(知壽町)에 대응해서 경연장을 설정한 것이다. 『40年史』에는 제8회(1961)의 기사에 ‘ 시내를 7블럭으로 나누어 심사장을 설정’이라고 하는 주최자측의 방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경연장의 설정이 정책적이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지구내에서 어디를 경연장으로 총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착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⁸⁾

제9회(1962)부터 코오치역전이 약 10년간 경연장으로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관광객에 대한 선전활동의 일환이었고 大街에 상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제14회(1967) 무렵부터 升形이 경연장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미 상점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중심부와 상가와의 중간에 위치한 때문에 경연장 설치가 결정되었다. 제16회(1969)때에 中万万이 小高坂의 지구경연장으로 채용된다. 下知지구의 知壽町회장은 제9회(1962) 이후 설정되지 않게 되지만 주택

6) 知壽町은 제4회부터이다.

7) 旭, 小高坂, 上街, 江の口, 高知衛, 北街, 南街, 下知, 潮江이 그것이다.

8) 예를 들면 旭町の 경우 공장터와 역전거리를 적당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지인 北街와 이 下知를 제외하고 1970년대에 들어와 7개 지구의 대가(大街) 모든 곳에 경연장이 설치되게 된다. 옥정(旭町)에는 70년대 중엽 무렵부터 경연장이 없어진다. 경연장으로서 적당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 큰 이유이다.旭역전통에서는 남북으로 상점가가 늘어서게 되지만 북쪽으로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가단체의 증가와 단체 규모의 대형화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80년대 무렵부터의 경연장 설치 예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26회(1979)의旭町경연장과 제34회(1987)의知壽町경연장의 부활이다. 이 결과 8개소의 대가(大街)별로 경연장이 설치되게 되었다. 옥정(旭町)의 경연장으로는 적당한 장소가 없었지만, 1978년에 대형슈퍼마켓이 대규모 소매점포를 체인점으로 이 지구내 국도연변에 개점하게 된다. 이에 발맞추어 다음 해에 이 점포 앞 광장을 이용해 경연장을 부활시킨다. 경연장을 설치하고 싶은 지구측·상공회의소측과 지구에 서비스 선전을 하고 싶은 슈퍼마켓측 생각이 일치하면 경연장이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지(下知)지구에서는 1987년에 지역 유력기업의 본사빌딩이 낙성되어 그 해 요사코이에서는 본사빌딩앞 광장이知壽町 경연장으로 이용되게 된다. 본래 知壽町 부근에는 상점가가 몰려 있지 않고 상점들도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 빌딩앞에 광장이 생김으로써 경연장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2개소의 경연장이 가진 특색은 다른 경연장과 다르게 오도리코대의 통과가 어려운 점에 있다. 그 때문에 오도리코대는 광장 한 가운데에서 원을 그리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 또 知壽町경연장에서는 계단식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旭町경연장에서는 평면상의 텐트 관람석이 설치된다. 여기서 지구주민이나 기업, 슈퍼마켓 관계자들이 관람을 한다. 이 두 경연장의 설정에는 주최자측만이 아니고 기업, 슈퍼마켓측도 상당히 의욕적이었다고 한다.

경연장의 설정에는 상점이 진흥과 함께 관람객 절대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또 분포 측면에서 보면 다음 두가지 점이 지적된다. 우선 시가지 및 상업지의 확대 분산에 대응해서 경연장의 분포가 동서로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나는 그 경향이 단순히 상업지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각 大街별로 한개의 경연장을 설정한다고 하는

정책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거의 고수되어져 제34회(1987) 이후부터는 경연장 분포에 변화는 없게 된다.⁹⁾

7. 결론 : 역동적 축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요사코이마츠리」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요사코이」를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것도 주로 젊은층에게 왜 인기가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일본의 젊은 이들이 굳이 자기 돈 내가면서 참가하려고 하는 축제나 이벤트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요사코이」가 그러한 점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밀착한 축제란 어떤 것인가?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통을 새롭게 인식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 재미있는 축제란 어떤 축제인가? 등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물음들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요사코이」에는 참가자의 선택가능성이 최대한 열려 있다. 그것은 참가집단으로서의 「오도리코대」의 변천과 그 특질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오도리코대」의 모체가 되는 집단은 처음에는 정내회와 같은 지연적 집단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점차 회사나 학교 등과 같은 사연적 집단이 주를 이루다가 그 후로는 축제만을 위한 선택연적 집단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도리코대」의 대형화나 참가자층의 연소화는 참가자의 유동성을 높이는 작용을 해왔다. 젊은층일수록 매년 ‘폼나는’ 「오도리코대」를 선택, 이적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란 사실은 「오도리코대」의 유동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익명성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오도리코대」를 선택한 개인은 짧지 않은 연습기간과 축제기간을 통하여 아무런 대화없이도 같은 팀의

9) 예를 들면 시가지 동단에 위치한 高須지구는 시가지화와 상업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경연장은 설치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 지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단지이고 또 본소(本所)가 아니고 지소(支所)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멤버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일상의 폐쇄된 통로를 열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축제가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적어도 100여명이 넘는 「오도리코대」 안에서 자기 혼자 춤추고, 땀흘리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군중 속의 개인’을 우리는 보게 된다. 축제라는 거대한 틀과 「오도리코대」라는 조직 안에서 개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고 있는 현대의 젊은 군상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와의 물리적 단절속의 개인이 아니라 축제라는 혼돈과 열기 속의 익명성이 바로 「요사코이」가 성황을 이루며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써야 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조화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같이 춤을 춘다는 공통분모를 가지는 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현대적 개인성이 젊은층에게 어필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집단속의 익명성과 개인성의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요사코이」는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축제공간과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사코이」는 ‘상점가의 진흥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주로 ‘상점가나 대로변을 퍼레이드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퍼레이드를 하는 장소는 시내 10개소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것은 주최자측이 지정하는 곳이다. 지정된 장소는 상업지구라고 해야 할 곳으로 대개는 대형슈퍼마켓의 앞이나 유통기업·회사의 본사 앞이다. 이들 장소는 고정적이지 않고 이동해 왔다. 즉 경연장들은 시가지의 확대, 그리고 상점가의 성쇠에 상응해서 이동을 해온 셈이다. 이것은 경연장의 설정에 지역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축제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축제와 ‘상업적’ 어떤 것과의 관련성에 보이는 알레르기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본디 축제란 적극적 의미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요사코이」 인기의 배후에는 상업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와 객체의 정치학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요사코이」의 열기는 매스컴의 열기로 인해 더욱 상승된다. 전일제와 후야

제의 생방송을 필두로 개최기간 동안 지역민방인 코오치TV는 연일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심야에도 3시간씩 방영한다. 이는 축제의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을 필두로 지역언론매체와 함께 행해지는 철저하고 치밀한 홍보와 정보전달은 현대의 축제가 그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한다. 지역신문은 기획 기사를 통하여 축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야기시키며 방향설정에서의 조언자 역할을 한다. 진흥회가 발간하는 「가이드맵」 등과 같은 소개책자나 팜플렛 등은 요사코이에 대한 소개와 안내, 일정 및 경연장의 지도,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 70여개소에 이르는 주차장까지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축제와 지역언론과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사코이」에는 생성과정에서 주최자와 참가자의 전도현상이 보인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이지만 ‘보는 자’로서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주최자이었던 상공회의소는 어쩌면 객체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관객이 적극적 주최자로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이점이 「요사코이」를 가장 ‘역동적인’ 즉 활력있고 참가하고 싶은 축제로 만들고 있는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측면은 코오치인들의 생태학적 조건에 따른 기질과도 전혀 관계가 없지 않은 것이다.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다혈질적인 성격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닐까.¹⁰⁾

「요사코이」의 인기와 더불어 한가지 특기하여 들 것은 그것에 편승하여 타 지역에도 이것을 모방한 축제가 만들어지게 된 점이다. 북해도의 「요사코이 소란마츠리」가 그것이다. 인기 축제의 전파와 생성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 자세한 언급을 피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코오치시의 「요사코이마츠리」를 참가집단(오도리코대)과 축제공

10) 서쪽과 남쪽으로는 토사반=태평양에 면하고 있으며 겨울에도 북쪽의 산간지방을 제외하고는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들은 영하로 떨어지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간(=경연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려 보았다. 금후의 과제는 보다 역동적인 축제를 위하여 필요한 축제 연구상의 방향을 지적하는 것으로 과제를 대신하겠다.

우선 현지 조사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하며, 이에 의거하여 개개의 오도리코대와 경연장등에 관한 다면적이며 주도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요사코이」의 자체의 연극·외레론적 분석 및 음악·무용론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 최종적인 목적은 「요사코이」만의 개별 분석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축제가 가지는 의미로 귀결될 것이며, 요사코이 연구는 그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よさこい祭り20年史編纂委員會 編(1973),『よさこい祭り20年史』よさこい祭り振興會.

_____(1993),『よさこい祭り40年史』よさこい祭り振興會.

よさこい祭り長期ビジョン策定特別委員會 編(1988),『よさこい祭り長期ビジョン』よさこい祭り振興會

よさこい祭振興會/高知商工會議所 青年部 編(1992/93),『よさこい讀本』1・2 冬 발행.

小谷昌資 編(1992・93),『よっちょれ』1・2 ソニアジャパン.

茂木榮(1989),「都市とイベント：新しい祭り形式の擡頭」, 岩本・倉石・小林 編,『都市民俗學への情念と 宇宙』, 雄山閣.

森田三郎(1991),『祭りの文化人類學』, 世界思想社.

高知新聞(1993.8.5),「踊る夏：よさこい祭り40年(12)」.

_____(1993.7.31),「踊る夏：よさこい祭り40年(7)」.

有末賢(1983),「都市祭禮の中層的構造：佃・月島の祭祀組織の事例研究」,『社會學評論』, p.132.

内田忠賢(1993),「都市と祭り：高知よさこい祭りへのアプローチ(1)」,『高知大學教育學部研究報告』, 45 (第2部).

_____(1993),「地域社會と都市的イベント：高知「よさこい祭りを事例に」,『日本地理學會1993年春季大會豫稿集』.

_____(1994),「地域イベントの社會と空間：高知よさこい祭りへのアプローチ(2)」,『高知大學教育學部研究報告』, 47(第2部).

伊藤亞人(1987),「コメント：よさこい祭り,中國・韓國の祭りとの比較」,(米山俊直 他『〈シンポジウム〉都市の祭り：都市人類學的考察』,『季刊人類學』, 18-3.

松平誠(1988),「現代都市祝祭の構成：高圓社阿波おどり」,『季刊人類學』, 19-2.

I.D				
-----	--	--	--	--

청소년축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문화체육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주의, 물질주의 사상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축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137-130)

Tel) 578-7922/7923

I. 매년 전국의 각급학교와 청소년단체 또는 지역사회별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하여 다음 문항을 읽고 답하시기 바랍니다.(1-16)

1. 이러한 청소년축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2. 청소년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친구의 소개 (2) 부모님의 권유로
(3) 대중매체(매스컴)을 통해서 (4) 선생님(지도자)의 권유로
(5) 학교행사에 동원되어 (6) 스스로 원해서

3. 때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 (1) 관심이 없어서 (2) 시간이 없어서
(3)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4) 언제 하는지 몰라서
(5) 행사장소가 멀어서

4. 전통축제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다소 필요하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없다
(5) 전혀 필요없다

5. 청소년축제 중에서 길놀이, 풍물, 민속놀이 등을 주로 하는 전통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2) 전통적인 내용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 (3) 전통축제는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

6. 이러한 전통축제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재미있다
- (2) 참가자들과 결속감을 느낄 수 있다
- (3) 전통놀이를 배울 수 있다
- (4) 전통정신을 접할 수 있다
- (5) 축제에의 직접적인 참여기회가 많다
- (6)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7. 각급학교, 청소년단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전통축제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해당번호에 V표 하십시오.

행 사 에 직 접 TV 나 전 히
직 접 구 경 만 비 디 오 보 지
참 여 했 다 했 다 만 봤 다 못 했 다

(1) 청소년 단체 축제 ① ② ③ ④

(2) 학교축제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향토축제 ① ② ③ ④

8. 축제를 하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1) 1일 미만 (2) 2일 정도 (3) 3일 정도 (4) 4일 이상

9. 축제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 (1) 방학 (2) 어린이날 (3) 운동회때
(4) 학기중 주말 (5) 민속절 (6) 기 타

10. 기회가 생기면 축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반드시 참여하겠다 (2) 시간이 나면 참여하겠다
(3) 잘 모르겠다 (4) 참여할 생각이 없다

11. 축제는 일반적으로 기획에서 시작해서 준비, 진행,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 우 활 발 한 그 저 부 진 한 참 여
기 회 가
활 발 하 다 편 이 다 그 령 다 편 이 다 거의없다

(1) 기획과정	①	②	③	④	⑤
(2) 준비과정	①	②	③	④	⑤
(3) 진행과정	①	②	③	④	⑤
(4) 평가과정	①	②	③	④	⑤

12. 전통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만족스럽지 못하다
- (5)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13. 다음 〈보기 1〉의 전통축제 프로그램을 참고로 각각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보기 1〉			
① 가장행렬	② 풍물패 공연	③ 민속극	④ 민속춤
⑤ 민속노래	⑥ 길놀이	⑦ 전통의례(제의, 기원)	
⑧ 영화, 비디오상영	⑨ 공개토론	⑩ 초청강습	⑪ 민속경연
⑫ 민속놀이	⑬ 민속체육대회	⑭ 민속장터	⑮ 전시회

(1) 위의 〈보기 1〉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위의 〈보기 1〉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청소년축제가 실시된다면 참여하고 싶거나 권하고 싶은 행사나 활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기 1〉 이외의 것으로 1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14.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통축제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매 우 다 소 그 저 별 로 전 혀
그 령 지 그 령 지
그 령 다 그 령 다 그 령 다 앓 다 앓 다

- (1) 정겹다 ① ② ③ ④ ⑤
- (2) 흥분된다 ① ② ③ ④ ⑤
- (3) 신난다 ① ② ③ ④ ⑤
- (4)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 (5)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6)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청소년축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내용이 진부하다
- (2) 행사성 위주로 동원된다
- (3) 함께 배우기가 어렵다
- (4) 직접 참여하여 즐길 기회가 적다
- (5) 홍보가 부족하다
- (6)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16. 전통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 (1) 옛 조상들의 축제 모습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
- (2) 전통문화와 현대축제를 접합해야 한다
- (3) 청소년들에게 전통축제 참여기회를 자주 주어야 한다
- (4)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I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경우를 답해 주십시오.(17-20)

17. 성별은?

(1) 남 (2) 여

18. 재학중인 학교는?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실업계)고등학교 (4) (인문계)고등학교

1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래 〈보기 2〉와 같이 써 주십시오.

(_____ 시·도 _____ 구·군)

〈보기 2〉

서 울 (시)·도

강 서 시·군·(구)

경 기 시·(도)

김 포 시·(군)·구

20. 현재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